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시간=비즈니스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CONTENTS

I 고졸 채용 / 01

1. 7전 8기? 아니, 난 100전 101기! 3
2. 물음표를 던져 느낌표를 얻기까지 6
3. 나의 '워유라벨'(Work+University+Life+Balance) 10
4. 나는 출석부 대신 매일 출근부를 찍는다! 14
5. 우리들만의 길을 걷다 18
6. 꿈꿀 수 있다면 실현도 가능하다. 22
7. 최고의 동기부여, 내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 26
8. 고졸 입사 11개월차 31

II 블라인드·직무능력중심 채용 / 35

1. 내 안의 '나'를 찾는 과정,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말하다. 37
2. NCS, 거북이의 꼬리표를 떼어주다! 42
3. 진짜 나를 보여주기 위해, 나를 가리다. 47
4. 꿈꾸는 사회, 도전하는 채용 53
5. 블라인드 채용으로 구원받은 삶, 공리를 위하여. 58
6. 당신이 곧 브랜드입니다. 62
7. 전직 패션디자이너 ICT 공공기관에 입사하다. 67





III 유연근무제 / 71

1. 전환형 시간선택제, 미래를 앞당기는 용기 73
2. 일과 가정: Win-Win 전략, 유연근무제 78
3. 내 이름을 찾아준 시간선택제 83
4. 시간선택제, 긍정적 나비효과와 시작!! 87

IV 청년인턴 / 91

1. “인턴을 또 해?” “한번 더 OK!” 93
2. “체험형 인턴”에서 “채용형 인턴”으로 97
3. 보통 우표에서 특별 우표로 거듭나다. 102
4. 청년인턴, 정답을 알려줘! 106
5. Intern을 In-turn으로, 성장의 기회가 되다 110
6. 청년인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114
7. 청년인턴의 실효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118
8. ‘나’ 라는 선, ‘인턴’ 이라는 점. 123

V 지역인재 채용 / 129

1. 지역인재 채용, 청년에게 희망을, 지역에 균형발전을 131
2. 내 인생을 바꿔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135
3. 지방대생, 금융공기업 입사를 꿈꾸다 139
4. 날개가 없다 그래서 뛰는 거다 143
5. 지역인재 채용, 상어의 부레가 되다. 147

I 고졸 채용

- 1 7전 8기? 아니, 난 100전 101기!
- 2 물음표를 던져 느낌표를 얻기까지
- 3 나의 '워유라벨'(Work+University+Life+Balance)
- 4 나는 출석부 대신 매일 출근부를 찍는다!
- 5 우리들만의 길을 걷다
- 6 꿈꿀 수 있다면 실현도 가능하다.
- 7 최고의 동기부여, 내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
- 8 고졸 입사 11개월차



01

7전 8기? 아니, 난 100전 101기!

이○○ 한국수자원공사

100번은 넘어져도 101번은 안 넘어질 수 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뜻으로 실패에도 굽히지 않고 분투함을 일컫는 七顛八起(칠전팔기)라는 사자성어를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취업준비 과정에서 7번 탈락하고 8번을 도전할지 포기할지 고민하고 있는 고졸 학생들을 위해 저의 101번째 걸음과 앞으로 더 많은 걸음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발걸음은 언제나 두렵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대부분의 학생들처럼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가 흔히 말하는 '인서울(in Seoul)'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에게 남들과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좋지 않은 가정환경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 조부모님 품에서 자라며 어찌면 조금 빨리 취업이라는 높은 문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찾아온 것은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라는 '마이스터고등학교'였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란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하여 최고의 교육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젊은 기술명장을 양성하는 전문계 고등학교로 취업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시선을 생각보다 냉담했습니다. "여자가 기술을 배워서 어디에 쓰냐.", "그래봤자 고졸이다.", "너는 그 학교에 들어갈 수준이 안 된다." 등 차가운 반응에 새로운 도전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내딛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거라는 마음을 가졌고 결국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험과 면접을 준비해 7.8:1의 경쟁률을 뚫고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향한 첫 발걸음은 언제나 두려운 것 같습니다. 내 발걸음이 정말 목표로 향하는 것이 맞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목표와 먼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장애물에 처음부터 막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출발선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목표에는 절대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출발한 사람만이 결승선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출발선에서 지금 망설이고 계신가요? 뛰세요! 여러분의 목표가 결승선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빛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혹시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빛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런 구절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자 가스 캘러헌의 책 ‘냅킨 노트’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제 좌우명이기도 한 이 구절은 제가 취업 준비를 할 때 많은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취업 준비 당시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기업에 입사지원을 하여 단 2번의 아르바이트 합격과 약 100번의 탈락을 겪었습니다. 끝이 없는 탈락에 솔직히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는 순간들이 찾아왔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덜 자고, 더 공부한 3년 6개월의 노력이 점점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저에게 가장 많은 힘이 되어주셨던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서 저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이 바로 ‘냅킨 노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읽은 구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바로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빛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였습니다. 그 구절을 읽자마자 저는 ‘폭풍은 언젠가 지나가니까 내가 그저 막연하게 그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넘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 빛속에서 춤추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해낸 춤추는 법은 바로 ‘꿈’이었습니다. 저는 취업 준비를 할 동안 단순히 취업을 해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여기저기 제 전공과도 관련 없는 입사지원서를 마구 넣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진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계속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기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넘어지기만 하는 저에게 필요한 것이 ‘꿈’이라는 걸 아주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넘어진 동안 저는 ‘내가 배운 전공을 살려 기술명장이 되자.’, ‘나를 위해 애쓰신 아버지와 조부모님에게 꼭 효도하자.’라는 두 가지의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폭풍이 지나가기 전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꿈’이라는 글자가 단순히 취업이라는 폭풍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꿈’을 찾게 된다면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한줄기 햇살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햇살을 따라 다시 힘을 내서 즐겁게 결승선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넘어져서 걸은 101번째 걸음, 넘어지지 않아도 걸을 102번째 걸음.

첫걸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추운 빗속을 지나 101번째 걸음을 걸은 저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라는 작은 꿈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제가 전공한 전기의 기술명장이 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내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100번 넘어져서 101번째 일어났고 그 걸음 덕분에 취업이라는 작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은 넘어짐이라는 실패였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면 결승선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일어났고 결국 결승선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도착했으니 더 달리지 않아도, 좀 앉아서 쉬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큰 장애물이 없어서 넘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 결승선을 향해 더 뛰어갑니다. 꿈을 향해 넘어지지 않아도 계속 일어나 달려갑니다!

기술명장 그리고 효녀가 되기 위해 내딛은 제 102번째 걸음, 저와 함께 뛰어갈 고졸 학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모두들 꿈이라는 결승선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고 일어나 달려주세요!

물음표를 던져 느낌표를 얻기까지

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우리는 늘 자신의 결정에 의문을 가진다. 하물며 오늘 먹을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도 어려운데 미래를 위한 선택을 확신할 수 있을까. 누구든 희미하고 아리송한 물음표가 아닌, 정확하고 명쾌한 느낌표를 얻길 원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확신 없는 물음표 투성이다. 고졸채용이라는 스무고개 같은 길을 걸으면서 답 모를 질문들을 나에게 던졌다.

대학 안 가도 괜찮겠어?

취업이라는 남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한 내가 수 없이도 받았던 첫 번째 물음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것이 정답처럼 느껴진다. 대개 이 질문은 앓된 얼굴을 한 스무 살이 준비 없이 사회에 발을 딛는 것 같아 걱정되어서 던지는 물음표다.

물론 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고등학교보다 다양하고 풍부해진다. 어쩌면 고졸취업자들은 ‘대학에서의 배움’이라는 기회비용을 지출하고 취업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 수년간을 돌아보면, 내가 선택한 회사도 ‘배움터’가 되기엔 충분했다. 어린 나이에 취업한 만큼 늘 긴장 속에 살았고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다. 주변의 좋은 멘토들은 나를 이끌어주려고 했다. 배움터 현장에서 인생 수업을 받아본바, 대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사회를 직접 겪으며 성숙해질 수 있다. 또, 남들보다 일찍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업무에 대한 내공과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무엇으로 자랄지 모르는 씨앗에게 물을 주고, 바람도 쐬게 하고, 해를 쬐이게 하는

것처럼 갖은 영양분들이 나를 틈워주고 성장하게 해줬다. 이제는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렸으니 후배들의 버팀목이 되어줄 차례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원숙한 나무가 될 자격이 있다.

시선을 견딜 수 있겠어?

편견이 짙은 두 번째 물음표가 던져졌다.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걱정이 앞선다. 과연 내가 편견을 깨고 잘 해낼 수 있을까. 아직도 첫 출근 전날 긴장으로 잠 못 이루던 밤과 어색하게 미소 짓던 내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선배들은 학력으로 규정짓지 않고 아낌없이 자신들의 지식을 나눠줬다. 그럼 나는 나눠준 지식을 얼른 받아 내 것으로 만든다. 무언가를 배울 땐 어리고 젊은 것이 강점이 된다. 업무 지식을 빠르고 쉽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스펀지 같은 장점은 사람들을 주목시키기에 충분하다. 사회적 시선이 위기일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우리 회사도 고졸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로 고졸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처음에는 선례가 없어 고졸 사원이 어색한 이방인처럼 느껴졌겠지만, 이제는 나를 포함한 고졸 직원들이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회사 속에 녹아들었다. 사실 고졸, 대졸로 나눈다기보다 각자의 맡은 일을 수행하며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라고 볼 수 있다. 서로의 기쁜 일을 축하해주고 어려울 땐 같이 목소리를 내주는 든든한 동료들 덕분에 편견 어린 물음표는 지워졌다.

다시 공부 할 수 있겠어?

회사에 입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물음표가 머릿속을 헤집는다. 고졸 취업자에게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사이버대, 방통대, 야간대 등 많은 선택지가 있다. 나는 퇴근 후에 저녁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교를 원했다.

고민 끝에 대학교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부분의 선배들은 격려했지만 체력이나

시간 면에서 부담스럽지 않겠냐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물론 스스로도 일과 학업의 병행이라는 것이 과연 옳은 길일지 걱정이 앞섰다. 하나만 쫓아가기에도 벽찬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내가 생각해도 어려워 보였다.

안정된 직장을 잡았지만, 다시 고된 길을 선택한 이유는 새로운 '환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보면 누구든지 타성에 젖게 된다. 처음에 품었던 열정은 식어가고, 반복되는 업무와 일상은 긴장의 끈을 놓게 만들었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나를 알싸한 자극제로 깨우고 싶었다.

지금은 세 번째 물음에 답하듯 직장과 대학을 함께 다니는 '직대딩'이 되었다. 물론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직대딩으로 사는 것은 여러모로 쉽지 않다. 회사가 끝나고도 분주하게 학교로 달려가 수업을 듣고, 시험 기간엔 새벽까지 공부를 하다가 쪽잠을 자고 출근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충분한 자극제이자 새로운 즐거움이다. 회사에서도 고졸사원들의 배움을 장려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고졸취업을 선택하면 대학에서의 배움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잠시 서랍에 넣어둔 책을 다시 꺼내어보듯 배움을 미뤄두었을 뿐 버리지 않았다. 회사에서 먼저 실무를 겪어보고 관련된 이론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생기고 공감이가난다. 어떤 이들은 20대 중반의 신입생이 늦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늦깎이 직대딩은 오늘 은 무엇을 배우고 어떤 자극이 나를 깨울지 설레기만 한다.

이제는 확실한 느낌표!

어느덧 회사에 입사한 지 5년째, 열아홉 살에 교복을 입고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취업 준비생이 되었으며 또래 친구들보다 먼저 정장을 입는 직장인이 되었다. 그리고 조금 늦은 나이에 대학생이 되었다. 순서는 다르지만 남들과 같은 과정을 겪었다.

학업 대신 취업을 선택하면서 실무를 경험하고, 편견을 걷어내는 방법을 깨닫고, 실무에 기반한 이론을 배우면서 점차 성장하고 있다. 물음표로 가득하던 고졸 채용을 직접 겪어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알지 못할 물음에 답을 적어 내려가는 과정은 점점 확신에 찬 느낌표로 바뀌는 중이다.

스무고개의 마침표.

다른 길을 걷는 우리에게겐 감각이 필요하다. 자신이 가진 강점을 알고 업무에 적용하는 현실감각, 초행길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방향감각, 일과 학업의 중심을 잡는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 나는 아마도 감각들을 깨우기 위해 그렇게 묻고 또 물었나 보다.

이제는 고졸채용에 대한 물음을 마치려고 한다. 이 스무고개를 넘어왔다는 것은 그만큼의 버틸 수 있는 힘과 감각이 생겼다는 뜻이다. 또 다른 스무고개가 나에게 주어지겠지만 이제는 느낌표를 구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새로운 수수께끼도 재미있게 풀어나갈 자신이 있다. 만약 당신도 고졸채용에 대한 물음표 투성이라면,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며 명쾌하고 희망찬 느낌표를 얻길 바란다.

나의 '워유라벨'(Work+University+Life+Balance)

김OO 한국국제협력단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고졸채용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은 높은 연봉과 안정성을 위하여 대기업, 공기업 등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고졸채용을 준비할 당시에는 공기업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했으며 노력 끝에 제가 정말 원하던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회사의 채용공고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채용공고에 지원했던 저는 매번 면접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좋은 성적과 많은 자격증 등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모두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탈락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으며, 희망하던 고졸채용을 포기하고 대학교 진학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 문득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높은 연봉과 안전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인지 생각해보게 되었고, 평소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자'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던 나 자신에게 과연 지원하고 있는 회사들이 적합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업무를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연봉과 안전성이 아닌 나 자신에게 맞는 방향에 맞춰 취업을 준비하였으며 그 결과, 대한민국 국제원조기관 한국국제협력단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 국제협력단에서 실질적인 개발협력 업무를 수행하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 자신에게 만족하고 업무를 통해 제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졸채용은 사회로 가장 빨리 진출할 수 있는 지름길로 비교적 빨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름길은 매년 힘들고 험하기 마련입니다. 고졸채용의 길이 에움길 이 아닌 지름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고졸취업자인 제 자신이 증명해야 할 과제이 자 반드시 이뤄야 할 목표라고 생각하며, 고졸채용이 혁신적인 취업모델로 성장하도록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가할 계획입니다.

내가 해야만 하는 것들

고졸채용자로서 제 자신과 고졸채용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 자신에 먼저 변화를 주고, 이를 통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주위에서는 '피곤하지 않나?', '굳이 내가 해야 하니?'라고 하시지만 고졸채용자로서의 제 모든 행동은 의무라고 생각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주는 변화, 선 취업 그리고 후 진학>

제 자신을 고졸취업의 선두주자로 생각하며 '선 취업, 후 진학'의 우수사례로서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꾸준한 자기개발을 통하여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 2학년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전문성 습득과 자기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되었으며 실제 배움을 통해 발전해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주는 변화, 선 취업 후 진학 홍보 및 고졸취업 인식개선>

선 취업 후 진학 제도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능력 중심 사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취업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며, 고졸에 대한 인식이 마냥 좋지만은 않은 현실에 많은 청년들이 선 취업 후 진학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선 취업 후 진학 상담, 특성화고 인식개선 강의, 고졸취업

선배와의 대화 등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실행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고졸취업 또는 선취업 후 진학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먼저 다가가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고졸취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을 고졸취업 이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선취업 후 진학자의 선두주자로 실제 고졸취업자의 스토리를 전달해줌으로써 많은 이들이 동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워유라벨(Work+University+Life+Balance)〉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으며,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매번 생각하고 계획하였으나, 시간에 쫓기는 현실과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매번 포기하는 학우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중앙대 지식경영학부 학우들과 함께 직대딩(직장인+대학생)의 일과 대학교, 삶의 균형을 위한 프로젝트 팀 ‘가온누리’를 창단했습니다. 회사와 학교를 병행하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꿈과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달성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팀의 리더로서 ‘가온누리’를 현재와 미래의 선취업 후 진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공유한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계획하며 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고졸채용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청년층 실업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으며,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보다 더 빨리 성취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졸취업 및 선취업 후 진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모든 고졸취업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으며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고졸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고졸취업 붐에 이어 2012년부터 고졸채용이 대폭 활성화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고졸취업을 선택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취업 이후의 문제점

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오랜 시간 근무하였지만 좀처럼 인상되지 않는 임금과 고졸 취업자들에게는 굳게 닫힌 진급체계, 고졸이라는 인식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고졸 채용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 공공기관 인력 운영 방안'에는 '고졸 적합 직무를 발굴하여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고, 근로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침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채용기관은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될 의무가 없기에 채용 후 방치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기에 방향성은 존재하나 기업체의 경우 가이드라인조차 존재하지 않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발생하는 불안감이 고졸 취업자들을 퇴사의 길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및 청년층 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고졸채용 제도에 위와 같은 사후관리제도가 가이드라인이 아닌 규정 및 지침화가 되어 활용된다면 현재와 미래의 고졸 채용자들에게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축시켜주고 보다 더욱 제도를 매력적이고 효과적인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출석부 대신 매일 출근부를 찍는다!

조○○ 한국산업인력공단

밤 11시, 깜깜한 어둠 속 TV 광고에서 전화 벨소리가 들렸다. “따르릉~” 그리고 자고 있던 나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조영은입니다!” 라고 잠꼬대로 크게 외쳤고, TV를 보고 계시던 어머니와 여동생들은 놀라서 자고 있던 나를 흔들어 깨우던 그때로부터 4년이 훌쩍 지났다. 내년 2월에 나는 5년차 재직경력과 함께 대학교 졸업장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

숫! 말할 수 없는 비밀

지금은 부모님께 너무나 자랑스러운 장녀지만, 2015년 2월 말까지 저와 가족은 주변 지인들, 심지어 친척들에게까지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인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한 너무나도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어른들께서는 ‘당연히’ 평범한 “고등학생은 대학교를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제가, 특성화고가 아니라 인문계고를 졸업한 학생이 어떻게 곧바로 공공기관에 입사하게 되었을까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되고 나니 아무래도 곧 대학교에 진학할 저로서는 20대, 청년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 뉴스가 눈에 잘 띄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청년실업, 취업난, 취업준비생이라는 키워드는 당시에든 늘 화제였습니다. 이런 뉴스를 자주 접하다보니 냉혹한 현실이 와닿았습니다. ‘지금 당장 고등학교 안에서의 경쟁도 답답한데 대학교에서의 경쟁에서도 잘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남들 다하니 나도 당연히

갖춰야 할 스펙을 위해 투자해야 할 돈과 시간들이 벌써부터 아깝고 버거워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학 결정 후, 시간이 지나 수능을 보고 대학입학을 기다리던 저에게 운명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인턴채용 공고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의 눈을 확 끌어당긴 문구는 “스펙초월”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수험생 시절부터 늘 저를 답답하게 해온 생각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채용 공고를 읽어보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어떤 기관인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중심의 인적 자원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능력 개발, 자격검정,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와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저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대학이 저에게 더 깊은 학문을 위한 곳이 아니라 ‘졸업장’을 위한 수단이 되어 버린 것이 아닐까, 라는 결론을 내렸고 대학 대신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수차례 말리셨지만 제 고집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렇게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졸인턴 채용공고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턴에 합격하게 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는 대학교에 다닌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회사에 다니는 그런 이중생활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인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진학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학교 후배들에게도 몇몇하게 말할 수 있고, 많지는 않지만 대학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하는 후배들을 보면서 그때 했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일학습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입사한 후에는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께서 배움에는 다 때가 있는거라며 대학교 진학을 권유하셨습니다. 주말에 국가기술자격검정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검정이 끝난 오후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수능 전날, 회사 직원분들의 응원과 선물을 받으며 수능을 보러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수능이었고, 특히나 후배들 사이에서 보는 수능이라 더욱 긴장되었던 것 같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덕에, 조선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합격 결과를 확인하자마자 회사에서 환호를 질렀고, 회사 직원분들

이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물론,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일반 학생들과 동일하게, 주 4회에서 주 5회를 회사가 끝난 후 저녁에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은 10시 30분이 넘어서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저녁도 굶고 수업을 듣고 나오면 너무나도 피곤하기도 했지만, 팀장님과 동료 직원분들, 그리고 저보다 먼저 학교에 입학하신 선배님의 조언과 응원과 지지로 주저앉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의 배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연근무제를 통해서 8시에서 5시까지 근무하며 회사와 차로 40분 떨어져 위치해 있는 학교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기숙사에도 지원해 고등학교 친구들과 같은 호실을 쓰며 다른 친구들과 다름없는 대학생활도 누리며 행복한 4년을 보내왔습니다. 특히 1학년때는, 학교에서 주는 성적 장학금까지 받아 부모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취업과 학위취득을 함께하는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실무형 젊은 인재양성을 하고, 기업과 학습근로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일원으로서, 일학습병행의 모범을 보이는 것 같아서 스스로가 매우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더욱 더 역량을 높여 국민에게 먼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졸채용에 대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적극 활용해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학습 및 주제선택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도 Wee클래스를 통해 ‘꿈수업’을 들으며 진로탐색을 했지만, 인문계고라서 그런지 그 분야가 매우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중학생 때 다양한 진로 탐색 후 충분한 고민 후 진로를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도덕’ 과목에 ‘사회 예절’ 단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고졸채용을 통해 입사하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졸업과 동시에 사회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하루 종일 함께했던 것과 달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데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현재 배우고 있는 ‘도덕’ 과목에 ‘사회 예절’ 단원을 강화해 심화

교육을 한다면 갑작스러운 대처능력이나, 사회예절, 가정예절, 직장예절에 대해 좀 더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입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고등학교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일대일 멘토링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공기관 대부분은 사내에서 멘토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멘토링제를 인근지역 고등학교와 연계해서 진로탐색의 일환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특성화고나 인문계고나 아직 학생의 신분으로는 현장의 업무와 실생활이 와닿지 않을텐데, 선배들의 경험과 조언을 듣고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되면 좋겠습니다.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2018년 11월 15일, 전국적으로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이 날만을 위해 노력해온 수험생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달래준 필적확인 문구로, 이 수기를 읽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김남조 시인의 시 '편지'의 첫 구절입니다.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사실, 고졸채용으로 입사했다고 하면 대부분 특성화고 출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도 모두 취업만 목표로 하지 않고 대학진학으로 더 깊은 학문을 쌓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듯이, 인문계고 학생들도 모두 대학진학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학생분들이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정말 다양할텐데, 눈앞에 보이는 한 두가지만 선택지로 두지 마시고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충분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들이고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이기에 여러분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니까요! 신중한 고민 끝에 하는 선택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있게 한 발씩 내딛는 모든 후배님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우리들만의 길을 걷다

윤○○ 한국국토정보공사

프롤로그

작년 이맘때, 공공기관 합격이라는 제게 있어 첫 번째 전환점을 밟은 지 어느덧 일 년이 되었고 이렇게 수기를 작성하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화려한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고졸 취업의 길을 걷고 있는 저의 모습이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사회인으로서 더욱 성장하는 데 풀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의 시작

고졸 취업의 매력에 대해 알아차린 것은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과과의 진로상담 시간이었습니다.

고졸채용과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제도를 통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것에 흥미를 느껴 관심 있게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졸 채용을 하는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들, 그곳에 합격한 선배님들의 사례와 그 과정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고 저 또한 가능성을 느끼며 공공기관 취업이라는 목표를 갖고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눈으로만 보아왔던 낯선 분야였기에 처음에는 뒤처지는 모습도 있었지만 나만의 꿈을 갖고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기에 후회와 포기를 잊고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학까지 반납해가며 힘쓴 결과. 다양한 과목들을 접해보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여러 분야의 활동 경험을 쌓으면서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져나갔습니다.

과정 속에서 정답을 찾다

3학년이 되자마자, 본격적으로 취업에 뛰어들기에 앞서 자신에 대한 평가와 그동안의 노력을 시험해보기라도 하듯 관련 공기업에 첫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서류전형조차 넘어서지 못한 초라한 제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했던 결과에 수궁을 하고 반성하며 문제를 찾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스펙도 성적도 아닌 바로 내가 지원하려는 회사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부족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업무와 크게 연관성이 없다고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닌 회사의 생각과 시선이 나타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후, 공사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그에 걸맞은 인재를 상상해보며 충분한 학습과 이해의 과정을 거친 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원했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듯, 저는 어느덧 마지막 면접전형을 눈앞에 둘 수 있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NCS 채용 방식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공공기관으로 면접 방식에서도 차이가 뚜렷했는데요, 특정 상황과 함께 5분이라는 시간을 주고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면접에 대해 듣고는 많은 당황을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질 만큼 긴장을 했던 터라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생각하기에 5분이란 시간은 짧았지만, 정해진 답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상황을 침착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힘썼습니다. 생각을 정리한 후 자신만의 생각과 소신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니 좋은 점만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과 부담감 대신, 꾸밈없는 자연스러운 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서류전형 탈락이라는 첫 번째 실패를 딛고 최종 합격이라는 일취월장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첫 출근, 설렘 반 걱정 반

첫 직장생활을 먼 타지에서 하게 되었을 때, 원하는 회사에서 일한다는 설렘과 낯선 환경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로 마음이 복잡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을 잊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요, 다른 아닌 회사와 선배님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현장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부족한 실무경험에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면 먼저 다가와서 멘토가 되어주셨고, 학교나 교육원에서 배우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 여쭙보아도 누구나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스스로도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메모와 반복을 거듭하며 업무 내·외적으로 큰 문제없이 이해와 적응을 할 수 있었고, 기존의 매체에서 보던 딱딱하고 수직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 또한 나이 차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사에 잘 녹아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졸취업은 아직 현재진행형

입사 후에 저는 두 번째 전환점을 맞이하는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어엿한 사회인에 어울리는 모습이 되었을 때 즈음, 졸업 후에도 연락을 이어가고 있는 담임선생님에게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홍보차원에서 우수기업에 취업한 멘토를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 선배님들의 경험과 사례에 영향을 받았던 저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달려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대화와 질의응답을 하는 동안 많은 후배님들이 고졸취업에 대해 긍정적이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일찍이 미래를 그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선배로서 뿌듯함을 느끼고, 스스로도 더욱 성장하는 자기계발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그게 시작이 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못했던 방송 출연이라는 색다른 경험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촬영은 물론 인터뷰 한 번 해본 적 없었기에 잘할 수 있을까 하며 고민했지만 고졸 새내기 사원이 회사를 대표해서 방송에 나간다는 자부심과 저를 배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선배님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방송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출연 후 사내 게시판에 영상이 올라가면서 주인공이 다름 아닌 20살의 고졸사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저는 회사 내의 스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신 선배님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응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 고졸사원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보람차고 의미 있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위에 경험들로 한 가지 다짐을 확고히 할 수 있었는데요, 아직도 제 고졸 취업의 길은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래에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전한 결과, 꾸준한 성장을 하며 목표를 하나 하나 이뤄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저를 이렇게 만든 것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주변의 시선과 고졸이라는 단어에 스스로가 작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꼭 놓치지 말고 잡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경험이 경험을 쌓는 법이고 그 경험은 우리가 고졸취업이라는 먼 길을 걷는 데 있어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첫 출근을 꿈꾸는, 혹은 앞두고 있는 후배님들!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처음 보는 낯선 과목들을 배우고 처음 해보는 실습을 익히고, 처음 보는 전공에 자격증까지, 처음을 극복해냈던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신선한 두근거림을 잊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도전과 변화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자기계발을 위해 자격증을 따는 데 시간을 쓰거나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대학에 대해 고민해보기도 하는 등 지금보다 더 바빠 움직여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그 길을 걸어왔던, 걷고 있는 사례들이 분명히 여기에 있고,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질 사례들에서 여러분들을 뵈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꿈꿀 수 있다면 실현도 가능하다.

김○○ 한국도로공사

“축하합니다! 귀하께서는 2018년도 한국도로공사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최종합격 하셨습니다.”

그토록 간절했던 최종합격 소식이 꽃바구니와 함께 나에게도 전해졌다. 취준생 꼬리표를 달고 청년 취업난에 시달리는 지금, 나는 19살의 나이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다.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까지

중학교시절 나의 성적은 항상 상위권에 머물러있었다. 3학년 진학 상담 시 담임선생님께서 인문계고등학교 진학을 권유하셨고, “대학은 졸업해야지~”라며 친척 분들도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다. 하지만 우리가족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부모님께서서는 나에게 먼저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가르쳐 주셨고, 직업박람회나 특성화고 진학 설명회에 다니며 다른 시선을 갖게됨과 동시에 상업계고등학교진학을 희망하게 되었다. 어쩌면 무모한 도전일지도 모르는 선택이지만 나에게 대한 확신을 갖고 조금 다른 길로 향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런 나의 결정에 담임선생님께서 “가정이 많이 어렵니?”라는 말씀을 하시고 부모님에게도 전화를 걸어 특성화고 진학을 원치 않으셨다. 하지만 내 길을 열어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응원 아닌 응원을 받으며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특성화고 입학 후 내 목표는 공공기관 취업이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선배들이 공공기관에 합격해 이름을 알리는 모습이 멋있을뿐더러 학교의 자랑이 되는 것이 부러웠

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단순했던 이유들이 나를 더 자극하기 시작했고, 공공기관에 취업한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각종 교외대회나 동아리활동을 하며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

실패는 또 다른 시작이다

교외대회의 치열한 경쟁은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었다. 고등학교 2학년, 동아리선생님께서 부산상업경진대회에 출전하기를 권유하셨다. 나는 흔쾌히 출전하겠다고 했고, 출전 부원들과 함께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공부하는 ‘99클럽’을 만들어 함께 같이 약 1달간 대회준비를 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3점 차이로 99클럽 부원들 중 혼자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다. 마치 인문계고등학교에서는 ‘인서울-지방대-제발 대학만..’으로 눈이 낮춰지는 것처럼 나도 공공기관 취업에 대해 겁을 먹기 시작했다.

이런 나의 모습에 부모님께서 진심어린 조언으로 응원해주셨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제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다른 대회에 참가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먹었다. 한번의 실패를 통해 내가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동아리대항전 우수상을 받는 등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최종목표인 “공공기관취업”에 다가가기 위해 스터디모임을 만들었다. 방학에도 학교에 나와 하루에 4시간씩 NCS공부를 하고 4시간은 토론면접, PT면접 등을 준비하면서 자존감도 서서히 회복되었고, 취업이라는 높은 벽에 부딪혀보기로 하며 나의 취준생활은 시작됐다.

취업전선에 뛰어들며

- 제한된 인원으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금번 필기전형 결과, 불합격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내가 받은 불합격 소식들이다. 진심 없는 문자들을 6통 정도 받으며 ‘아 나는

안되는건가’ 하며 불안해졌다. 현재 고졸채용 경쟁률이 훨씬 높아지고 현장실습 기간도 하반기로 미뤄진 점 때문에 앞이 캄캄했던건 사실이다. 하반기가 지나가면서 주저앉을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계속 되는 친구들의 합격소식에 나도 ‘합격’이라는 욕심을 버릴 수 없었다.

그러던 중 한국도로공사 채용공고가 떴고 친구들과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자기소개서도 서로 봐주며 열심히 쓴 결과 모두 서류전형을 합격해 기쁜 마음으로 필기전형을 준비했다. 하지만 필기전형 합격자는 단 1명이었고 그 주인공이 바로 나왔다. 친구들은 자신의 결과보다 나를 축하해 주기 바빴고 그 순간 만감이 교차했지만 자만하지 않고 ‘꼭 최종합격이라는 마침표를 달고싶다’라는 욕심이 생겼다. 친구들의 응원덕분인지 이후 1차면접전형과 2차면접전형을 합격할 수 있었고 조직의 구성원 중 한명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Work Study Balance

사실 입사 후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학기별 고사는 응시해야 했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응시하여 쉽게 말해 “찍기시험”이 되었다. 이는 현재 현장실습생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대학을 진학할 때 생활기록부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실습이라는 이유로 시험에 제대로 응시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실습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교육이나 학습지를 통해 원활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현장실습과 함께 학습을 병행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학교교육에서 벗어나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도로공사에서는 멘토링제도와 순환ojt교육을 통해 현업에 투입되기 전 업무를 살펴보는 교육이 있는데 이또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u-러닝을 통해 교육을 온라인으로 들으며 직무능력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보건교육을 듣고 평가를 통해 끝마치고 있다. 현재도 현업 ojt교육으로 현업에 투입되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순차적인 교육이 바탕이 되어 적응도 빠르게 할 수 있었고, 업무도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속도보단 방향

SNS를 통해 합격소식을 듣고 연락이 와 도움을 얻으려는 후배들을 보고 많은 인재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막연하게 공공기관 취업이 꿈이었지만 한국도로공사라는 정확한 목표를 잡고 준비를 한다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취업준비를 하는 게 많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안된다고 자책하지 말고 자신을 높여주세요. 그리고 교내뿐만 아니라 교외에 나가서도 많은 경험을 하면서 정말 특별한 본인만의 경험을 하나 갖고 있으세요. 저도 특별한 경험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주변 친구들은 그 경험들이 아주 큰 자산이 되는 모습을 보고 늦게라도 저만의 자산을 만들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면 좋은 결과는 따라올테니까 꼭 취보하길 바라요!!

약 3달간 교육을 받고 근무를 하면서 “고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무시하는 시대를 지나 “대단하다, 기특하다”라는 말을 더 많이 들은 것 같다. 19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선 취업 후 진학’제도와 ‘고졸채용’이라는 제도를 통해 먼저 사회에 발돋움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름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나가 더 이상 학벌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윈스턴 처칠)

최고의 동기부여, 내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

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최고의 동기부여, 내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

“감사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한국교통안전공단 최종 합격했어요!!!” 또는 “엄마, 나 오늘 월급 받았는데 용돈 콜?” 제가 취업 준비를 할 때 공부하기 싫거나 ‘내가 선택한 길이 끝없는 어두운 터널은 아닐까?’ 등 힘이 빠질 때 머리로 식힐 겸 상상했던 장면입니다. 여러 가지 즐거운 상상을 펼치고 나면 아무리 힘들어도 배시시 웃음이 나오고 다시 힘을 내 꼭 이런 날이 오기를 희망하며 공부하였습니다. 제 수기가 거창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지만 후배님들께서 제 글을 읽고 꿈과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그 일이 정말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던 기회

저는 서울에 있는 영상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정 분야에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1학년 동안 영상 수업과 미디어 제작을 실제로 접해보고 전문 과목으로 배웠는데 영상 분야를 직업으로 갖기엔 제 적성과 소질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영상 과목과 제 진로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쯤 회계라는 과목을 학교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회계 과목의 시험을 잘 보기 위해 방과 후 수업도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였으나 점점 공부할수록 명확한 규칙과 철저한

기록으로 관리되는 회계의 매력에 빠졌고 회계 자격증 취득과 상업 경진대회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저를 고졸 채용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은 저희 담임선생님입니다. 공공기관 고졸 채용과 선 취업 후 진학 제도에 대해 말씀해주셨고 회계를 좋아하니 이 분야로 취업을 해보는 것은 어떠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공공기관 고졸 채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친구들보다 취업 준비를 늦게 시작한다는 생각에 '가능할까?'라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남들보다 빠르게 함으로써 어린 나이에 경력을 쌓고, 배움에 더 뜻이 있다면 정부의 선 취업 후 진학 제도를 이용해 대학을 다닐 수 있다는 굉장히 매력적인 이 제도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를 알고 회사를 알면 백전백승!

제 상상대로만 멋지게 취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공공기관 취업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보다 자격증 개수도 적고 성적이 뛰어나지도 대외활동이 많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만의 톡톡 튀는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장점을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저는 '다양한 경험'을 내세웠습니다. 저희 학교의 특성상 영상제작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 하나씩 써 내려갔습니다. 조별과제를 자주 해 친구들과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하여 화합을 하였고 제작 당시 친구들과 간 갈등과 해결 방법, 연출을 맡았을 때 리더의 자질에 대해 고민했던 점. 연출로서 느꼈던 무거웠던 책임감 그리고 그 경험이 책임감과 신뢰가 중요한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작용할지와 제가 어떤 태도와 각오로 회사생활에 임할지 등을 진솔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다행히 제 간절한 마음이 닿았는지 면접 기회가 있었습니다. 면접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회사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고 나의 경험이 회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행보와 흐름을 보기 위해 공단에 관한 뉴스를 모두 읽었고 마지막 할 말을 물어보는 면접관에게 제 진심을 다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름만 들었을 때는 딱딱한 공공기관인 줄 알았는데, 취업 준비 동안 공단에서 제작한 SNS 드라마 '오렌지라이

트'를 보면서 후배들을 배려해주는 멘토링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대국민 에코드라이브 실천,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꼭 필요한 기업임을 느꼈습니다. 저 또한 사람 중심의 최고의 교통안전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성장하며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 가득한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졸 채용이 정착 된 단계

공단 입사 초는 제가 생각해도 어리고 풋풋한 20살인데 다른 직원들 눈엔 제가 얼마나 어리고 앓되어 보였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일을 배워 갈수록 사람을 알아갈수록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깊어집니다. 검사소 특성상 민원인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라 회계업무를 하면서 민원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더 잘하고 더 배우고 싶다는 욕심도 생겨 야간 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처음 고졸 채용을 생각하였을 때 “선 취업 후 진학이 실제로 가능할까?”라는 고민도 있었지만 공단에 입사해보니 일·학습 병행제는 물론 자기주도 학습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학사는 물론 석·박사 학위 취득에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직급별·직무별 맞춤형 교육으로 핵심인재 양성 교육을 매년 시행합니다. 특히 고졸 채용인 7급 직원들에게는 업무 중 필요한 회계, 기획, 의사소통, 프레젠테이션 능력 등 실효성 있는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사의 각 분야 담당자들에게 직접 교육을 받고 질문을 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와 학교 거리가 가까워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직원 누구나 유연근무제를 신청하여 일과 삶의 균형은 물론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선 취업 후 진학을 하면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첫째, 대학 입학에 따른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재직자들을 위해 학자금 지원을 해주고 제가 돈을 벌기 때문에 부모

님 도움 없이 제 스스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둘째, 배움의 의지가 남다릅니다. 성적 때문에 원하는 과도 아닌데 입학한 대학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스스로 진학한 대학이기에 열정이 가득하고, 배운 것을 실무 현장에 적용했을 때 드는 보람과 성취감은 비교가 불가합니다. 셋째, 고졸 취업 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선 취업 후 진학을 기반으로 한 계속 교육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직자를 위한 학과 신설, 소수·희소 계열 재직자를 위한 사이버 교육, 직무 관련 교재 개발 등 교육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는 만큼 고졸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정부의 정책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졸 채용에 대한 정책 제안

공직자의 기본은 청렴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고졸 채용 희망 학생들에게 청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제정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이 공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 국민들의 시각에서의 ‘부패’를 공직자들은 관행으로 여겨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등학교에서부터 청렴 교육과 공직자 행동 강령에 대해 배운다면 공직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갈등 상황과 거기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관을 더 굳게 형성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을 먼저 걸어온 선배로서 느낀 점

처음 선생님께 공공기관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의 대답은 “선생님, 저는 자격증도 별로 없고 남들처럼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였습니다. 취업에 대한 걱정도 취업 후에 대한 걱정도 누구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이 길을 먼저 걸어온 선배로서 느낀 점을 이야기하자면 “이 정책 정말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서류 탈락, 필기 탈락, 면접 탈락 등등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회사에서 멋지게 근무하고 있는 선배들도 다 겪었던 아주 다분한 일입니다. '내가 더 좋은 곳, 더 멋진 곳을 가기 위해 탈락했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자기소개서와 면접 태도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생각하며 절대 좌절이나 포기하지 마시고, 취업 후에도 꿈만 같은 일들이 기다리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졸 입사 11개월차

김OO 인천항만공사

입사 D-2주차

2017년 서리가 창밖을 가리던 12월, 버스 안에서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채용 최종합격 통보였다. 취업만을 바라보며 자격증을 취득하고 매일 NCS교재를 가방에 넣고 다니며 학교에 남아 면접을 준비하던 고등학교 3년의 시간이 결실을 맺고 취업이 전부라고만 생각하던 만 18세에 드디어 끝이 났다. 끝이라고 생각했다.

입사 1일차

2017년 12월 26일, 기대와 설렘을 갖고 인천항만공사에 입사를 했다. 정장을 입은 18명의 동기들과 대회의실에 앉아 처음 만났다. 그러나 처음에는 쉽게 말을 걸지 못했다. 고등학교도 아직 졸업을 하지 않았던 나와 다르게 동기들은 모두 대졸이었다. 학력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동기들도 학력으로 시선을 달리 하는 경우는 없었다.). 다만 나이의 장벽이 컸다. 대부분이 20대의 새내기 티를 벗은 20대 후반에서 직장생활을 거쳐 경험이 있는 30대였다. 나는 20살도 채 되지 않았는데 말이다. 합격 통보 이후 설렘과 기대만 가득했던 나에게 처음으로 걱정이 생겼다. ‘과연 내가 이 곳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내 나이를 알고 난 후 동기들이 신기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던 때, 나의 걱정이 만들어낸 선입견 때문에 느낀 그 이질감은 아직 잊을 수 없을 정도였다. 기대와 설렘으로 집을 나와 걱정을 품고 들어온 하루였다. 이 걱정이 얼마나 의미 없는 걱정인지 이 때의 나는 몰랐다.

입사 1개월차

입사한 지 1개월이 지났다. 내가 입사하고 재직 중인 인천항만공사(이하 IPA)는 인천항을 주제로 항만공사법에 의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항만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나는 고등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해 기계직으로 입사했고 항만시설팀에 발령을 받았다. 내가 맡은 업무는 항만시설 중 기계시설의 관리와 유지보수 업무이다. 항만시설 중 기계시설이라 하면 영화에서나 보던 거대한 하역장비부터 선박이 정박하는 함선, 부잔교 등 학교에서 배웠던 용접, 기계가공, 기계설계와 같은 것들과는 생소한 것들이었다. 내 업무를 알고 나서부터 공부는 고등학교까지 끝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항만시설 중 기계시설의 개요부터 종류와 구조, 이 시설의 유지보수라 하면 어떤 부분을 보수해야 하는지, 항만시설의 이해를 위해 사진과 영상을 찾아 대조해보며 알아갔고 국제 해양시설 세미나에 참석해 해외의 항만시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더불어 인천항이라는 특성에 맞도록 인천항의 구조, 특성, 사업방향 등에 대해 과거자료를 찾아보고 다른 팀의 동기와 교류를 통해 알아가며 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부했다. 이 때 취업이 전부이며 취업을 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나의 어린 생각이 깨졌다. 취업을 목표로 하는 고졸 후배들에게도 고된 취업준비를 끝내 성공을 하더라도 이걸 끝이 아닌 오히려 시작이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다.

입사 3개월차

모습을 감췄던 나뭇잎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한기가 물러갈 즈음,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났다. 어느날 나와 10살이 차이 나는 동기 형이 설계프로그램에 대해 모르는 게 있어 기계설계를 전공한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 때 동기 형에게 동질감을 느꼈다. 나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으니 나보다 뭐든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과 다르게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배우려고 하는 나와 같은 사원임을 느꼈다. 이를 계기로 입사 첫날에 나홀로만 들었던 이질감이 사라지고 동기 형누나들과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다. 사내 동호회 활동으로 평소 축구를 좋아해 관심사가 비슷한 동기 형과 함께 축구동호회에 가입해 수

요일마다 업무를 마치고 동기 형의 차를 얻어 타고 함께 축구장으로 퇴근하고 친해지는 데에는 팀스포츠만한 것이 없다고 했는가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또한 3개월 중 신입사원 교육으로 동기 형누나들과 자주 만나며 나의 의미 없던 입사 1일차의 걱정은 완전히 지울 수 있었다. 기관이나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후배들도 나와 같이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들과 직장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고 싶다. 나는 잠깐 동안 나이 차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의미 없는 걱정을 했지만 나이 차이가 있더라도 결국에는 서로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채워주고, 서로의 관심사가 맞으면 공유하고, 함께 일할 직장 동료다. 이런 가치관으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선입견 없이 접근한다면 동료들도 스스럼없이 다가와 줄 것이다.

입사 6개월차

직장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우리 공사는 고졸과 대졸의 직급체계가 분리되어 있는 다른 기관과는 다르게 고졸인 경우 7급(을)으로 들어와 4년차에 7급(갑)으로 승진해 대졸(7급(갑))과 직급체계가 같아진다. 4년의 시간을 두어 대졸(7급(갑))과 고졸(7급(갑))의 나이 차이를 줄이면서 직급체계를 통일해 고졸과 대졸의 차별을 줄이는 체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공공기관 중에서도 고졸과 대졸의 직급체계가 분리된 곳이 많으며 당장 내 주위의 재직 중인 친구들을 둘러봐도 고졸과 대졸의 차이를 정해 놓은 직급체계인 곳이 많다. 이런 기관들에 우리 공사와 같이 대졸과 고졸의 차이를 줄이는 직급체계를 제안하고 싶다.

입사 11개월차

곧 입사 1년차를 앞두고 있다. 이 시점에서 나는 고졸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려 한다. 먼저 병역의무를 앞둔 나는 병역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수행하며 틈틈이 기술자격증(기사자격증)을 준비해 취득할 계획이다. 병역을 마치고 IPA에 복귀 후에는 업무와 학습을 병행하여 나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과로 대학에 진학해 고등

학교 수준이던 직무지식을 더 넓히고 전문화시켜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마치고 고졸에서 안주하지 않고 더욱 자신을 발전시켜 IPA의 특성에 맞도록 전문성을 가진 해양·항만 특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마지막으로 취업을 앞둔 고졸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 공공기관이든 그 외 다른 기업이든 취업을 했다고 그 위치에서 만족하지 말고 나처럼, 혹은 나보다 더 큰 목표를 세웠으면 한다. 고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발전해야 진정 고졸이 차별받지 않는, 당당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II

블라인드·

직무능력중심 채용

- 1 내 안의 '나'를 찾는 과정,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말하다.
- 2 NCS, 거북이의 꼬리표를 떼어주다!
- 3 진짜 나를 보여주기 위해, 나를 가리다.
- 4 꿈꾸는 사회, 도전하는 채용
- 5 블라인드 채용으로 구원받은 삶, 공리를 위하여.
- 6 당신이 곧 브랜드입니다.
- 7 전직 패션디자이너 ICT 공공기관에 입사하다.



01

내 안의 '나'를 찾는 과정,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말하다.

황○○ 인천항만공사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창 혼란스러웠던 때로부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도서관과 스터디카페를 밤낮으로 다니며 희망과 절망을 오갔던 때도, 이제는 덩뎁히 추억할 수 있는 그저 하나의 경험이 되어버린 것 같다.

그러나 얼마 전 2년 동안 누구보다 치열하게 취업을 준비해왔던 친구에게서 이젠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추억으로 묻혀났던 나의 경험을 하나씩 되새기게 되었다. 그간 NCS 채용을 준비하면서 '나를 찾게 되었던' 내 경험이, 혼란에 빠진 누군가에게 취업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지표가 되었으면 한다.

더불어 지금 이 순간에도 문자 하나, 메일 하나에 가슴을 졸이는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가 용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공공기관 수기를 작성한다.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다 실패했던 첫 취업

대학교 4학년이 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 하나가 '지금까지 스펙 얼마큼 쌓았어?'였던 것 같다. 졸업반에 가까워지면서 취업준비생들은 스스로를 숫자로 표현하게 된다. 토익 점수, 인턴경험 횟수, 보유 자격증 개수 등 숫자로 등급이 매겨지는 취업시장에서, 나는 조금이라도 높은 숫자를 갖기 위해 참 애썼던 것 같다.

일렬로 나열된 수많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앞에 서고자 쉴 틈 없는 대학생활을 해왔다. 2학년 때부터 인턴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진로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도 생각했고, 영어점수를 최고점으로 만들면서 많은 이들을 제쳤다고도 생각했다.

이것저것 대외활동도 하고 교내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나를 '정량적'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막상 마지막 학기가 되어 취업지원서를 작성할 즈음엔 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남들이 말하는 '취업스펙' 칸은 거침없이 써내려갈 수 있었지만 정작 '나의 직무능력'을 기술하는 칸에서는 꿀 먹은 벙어리마냥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보다 '몇 살이 되기 전에 취업을 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에, 무작정 확률이 높은 기업과 직무를 선택하여 첫 직장에 입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난 퇴사했다. 나는 취업성공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고 그것이 나를 회사로 보내주었지만, 그 모든 것은 나의 직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NCS가 뭔지 잘모르겠다고? '확실한 나'를 준비하는 과정

첫 직장을 퇴사하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어떤 곳에서 내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회의감이 들 때 내가 마주한 건 NCS 였다. 그리고 NCS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하얀 종이에 무작정 마인드맵을 그리는 것이었다.

공공기관 NCS(국가직무능력표준)는 말 그대로 실제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을 국가가 산업별, 수준별로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그리고 지원자는 이를 위해 자신이 원하는 직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필요한 역량을 제시해야 한다. 다시 말해, NCS는 지원자에게 '정량적인 고스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 '본인이 보유한 능력 중' 특정 직무에 가장 적합한 것을 지원자 스스로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나는 마인드맵 중앙에 '나'를 작성하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활동, 회사경험, 장점을 계속해서 연결해 나갔다.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내가 해왔던 경험들 중 인상 깊었거나 좋았던 경험을 분류해 나갈 수 있었고 그것을 토대로 내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과감히 쓸데없는 스펙을 지워버릴 수 있었다. 처음으로 해보는 공기업 준비에 처음엔 막막함도 느꼈지만 NCS 시스템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오히려 더 간단하고 분명하게 준비를 해나갈 수 있었다.

NCS 서류전형은 생각보다 관대하다. 채용시스템의 경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항목의 유무에 대한 말이다. 잠깐 동안의 회사생활을 통해 느낀 것 중 하나는 입사 후에는 토익점수 20점의 높고 낮음이 업무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지원자가 겪어온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발현할 수 있는 잠재적인 직무능력이 더 중요하다. 인천항만공사 역시 나에게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공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업무수행역량 등 최소한의, 하지만 핵심적인 질문들로만 자기소개서가 제시되었고 난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겪어온 경험에서 직무능력을 도출할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지원하는 각 기관별 직무기술서를 정독하고 자신의 경험과 관심사를 매칭해보는 것이다. 직무기술서의 내용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 직접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찾아보거나 찾아가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뉴스 기사를 찾아보면서 내가 지원하는 기관의 특성을 찾아보고 해당 직무가 어떻게 녹아들지 상상도 해봤고 그것에 맞춰 지원준비를 하고자 노력했었다.

공공기관 재직자로 빙의되는 것도 방법 : 필기전형과 면접전형

공사의 서류전형을 넘어 내가 마주하게 된 관문은 필기전형과 면접전형이었다. 인천항만공사의 필기전형은 단순 계산 및 빠른 암산을 요구하는 문항보다 직무상황을 제시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실무중심의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되었다. 기관마다 문제출제 형식은 다르지만 사기업 인적성 문제와 다르게 NCS는 '직업기초능력'에 기반한 실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스스로 공공기관 실무자가 되어 문제를 대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직업기초능력을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업무 메뉴얼을 공식처럼 외우기보다 '내가 실무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태도로 문제에 다가갔던 것이 NCS 문제를 낫설지 않게 받아들였던 방법 중에 하나였다. 또한 표 해석 문제, 언어 및 수리문제 등 NCS 관련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고 접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나 역시 스터디를 통해 최대한

다양한 형식의 문제를 접하고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반복했다. 그렇기에, 인천항만공사의 필기문제와 대면했을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

우여곡절 끝에 필기전형을 합격하고 보게 된 블라인드 면접전형은 나의 모든 면접경험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 가장 먼저, 자기소개가 없었기에 참 ‘공정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다. 보통 자기소개는 1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을 어필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지원자가 스스로를 부풀려서 소개하거나 불필요한 미사여구를 잔뜩 붙여 면접관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블라인드 면접은 지원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기술을 과감히 생략한다. 면접의 초점이 지원자가 보유한 직무능력에 있기에, 지원자의 개인적인 경험은 능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될 뿐이다.

실무진 면접과 임원진 면접 모두에서 나는 취업준비생 000이 아니라 인천항만공사 재직자 000가 되어 대답하고자 노력했다. 물류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입사를 한다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 등 내가 공사 그리고 직무에 가지고 있는 관심과 그를 입증할 수 있는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 면접은 진행되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수없이 읽었던 직무기술서와 항만공사 최근의 뉴스들을 떠올리며 나의 경험과 덧붙여 대답했고, ‘나는 공사 재직자다’라고 되뇌이면서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하고자 노력했다. 공사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면접태도에 대한 노력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멈추지 않는 이상,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자가 했던 명언 중의 하나이며, 취업 준비할 때 잊지 않으려고 했던 말이기도 하다. 스펙 위주의 취업준비를 하다보면 시간은 어느새 빠르게 흘러가 있다. 나 또한 적지 않은 시간을 빙빙 돌아서야 지금의 직장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절망과 좌절을 겪으면서도 놓지 않았던 건 꾸준함이었다. 내가 담당하게 될 직무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선 어떤 관점에서 나 스스로를 정립해 나가야하는지 꾸준히 고민했다. 그리고 남들이 말하는 ‘타이밍’에 구애받지 않으려고 했다.

정말 가고 싶었던 인천항만공사에 입사해서 하루하루 바쁘게 업무를 배우게 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 아직도 항만·물류업계에 대해 배울 것 투성이지만 이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껴본 적은 없다. 직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했고 그 직무를 위한 능력을 물어보는 면접을 거쳤기에, 업무에 충실하면 지식은 언젠가 천천히 따라올 거라 믿기 때문이다.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꾸준히 나아가다보면 어떤 길에서든 결국은 종착역에 도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취업난 속에 많은 고민과 불안을 안고 있을 지원자들이 멈추지 않고 한걸음 더 내디딜 수 있길 응원하며 글을 마친다.

NCS, 거북이의 꼬리표를 떼어준다!

박○○ 중소기업진흥공단

“야, 너 지방대잖아”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는 지방대 출신이라는 지독한 꼬리표를 떼 주었다.

중소기업, 거북이가 경쟁력을 갖춘 세상을 그리고 싶었다. 실무 경험·공모전 수상·직무 관련 자격증 등 직무 역량을 갖췄음에도, 지방대라는 꼬리표는 나를 물 위의 느림보 거북이처럼 만들었다. 영화 내부자들의 무족보 열혈 검사처럼 출신 대학뿐 아닌 부모님의 직업까지 쓰라는 이력서 사이에서 더더욱 학벌 콤플렉스에 시달렸다.

하지만 블라인드·직무능력 채용은 눈을 감고 노래에 집중하듯, 편견을 버리고 오로지 내 역량에 집중해주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함께하는 사람 중심의 평가 ‘블라인드·직무능력중심’ 채용에 나 역시 함께하였고, 올해 6월 25일 200:1이라는 경쟁률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입사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거북이와 토끼의 공존을 그리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목표로 정책자금 융자·수출 마케팅·인력양성 등 중소기업의 일생과 함께하는 중소벤처기업 원스톱 지원 기관이다.

경제학도로서 토끼와(대기업) 거북이가(중소기업) 공존하는 세상을 그리고 싶었다. 거북이와 토끼의 공정 경쟁을 위해 거북이를 바다에 풀어 주듯, 대한민국 고용 99%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이라는 거북이의 특화를 위해 내 역량을 펼치고 싶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내가 꿈꾸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 역시 그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문턱을 넘기 위해 고민하였고, 직무기술서라는 나침반을 만났다.

취업의 나침반, 맞춤 컨설턴트 NCS 직무기술서

많은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이 그렇듯, 준비 과정에서 굉장히 막막했다. 이러한 불안감에 취업 준비를 위해 수강료에 몇백만원을 투자하기도 한다. 나 역시 고민을 이어가던 중, 직무기술서를 만나게 되었다.

직무기술서는 해당 기관의 주요 사업과 함께 직무 수행 내용, 필요지식, 기술을 상세히 안내한다. 나아가 NCS 학습 모듈 활용(www.ncs.go.kr)을 추천한다. 무료 서비스로서 채용 정보, 직렬별 필기 샘플 문항, 합격자 인터뷰 등 맞춤 컨설턴트로서 공공기관 취업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잠깐, 이러한 블라인드·직무능력중심 채용을 깜깜이 채용으로 오해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전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블라인드·직무능력중심 이력서를 들여다보면 철저히 직무 관련 자격증·교육사항·경험경력 사항만을 기입하게 되어있다.

덕분에 해당 직무에 불필요한 어학 등을 배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관련한 직무 역량 계발에 힘쓸 수 있었다. 나아가 NCS 직무기술서를 기반으로 직무 경험·경력을 준비하였다.

자격증으로 컴퓨터활용능력 등 현장에 활용되는 자격증을 준비하고, 수강 과목 역시 지역산업발전론 등 기업 관련 과목을 수강하였다.

경험·경력 계발을 위해 동·하계 지역 기업 연수로 중소기업과 함께하고 필요를 이해하며 기초를 다졌다. 다음으로 경영 지원 역량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역 중심 판로 지원 정책 제안·교육 행정 업무를 진행하였다. 또한 컨설팅 역량 함양을 위해 논문경진대회 등 다양한 마케팅 공모전에 출전하여 다수의 수상 결과를 얻었다.

그 외 다양한 직무 역량을 쌓았고, 이는 공공기관 청년인턴 선발의 계기가 되었다. 인턴 중에도 직무 기술서는 손에서 놓지 않았다. 중소기업을 위한 입찰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직무 역량 계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이렇듯 직무기술서는 하나의 나침반으로서, 계단을 오르듯 차근차근 나만의 직무 스토리를 만들어주었다. 자,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문을 두드리러 갈 시간이다.

블라인드·직무능력중심 채용, 나만의 직무 스토리를 들려줘!

1) 서류 전형, 나만의 이야기를 외치다!

일반 기업의 경우 출신 학교부터 부모님의 직업까지 직무와 무관한 부분을 기입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블라인드·직무능력중심 이력서는 오로지 직무 역량에 집중한다.

실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력서는 경영기획·총무 등 직무 관련 분야를 분류하여 기입한다. 어학 등 특정 역량은 해당 직렬에 한해 기재한다. 또한 경험·경력 기술서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관련한 직무 수행 내용 및 성과를 묻는다. 자기소개 문항 역시 실무 기여 및 자기성장 목표에 대해 기술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안의 내 역할에 대해 물음표를 던졌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입사를 위해 준비한 교육 이수 내용과 경험·경력 등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직무 스토리를 적어 내려갔고, 서류 전형에 합격하였다.

2) 필기 전형, ‘배우고 익히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필기 전형,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고배를 마시는 관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몇백만원의 수강료를 지불하면서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 직무기술서에 기재된 과목을 집중 공략하며, 앞서 언급한 NCS 학습 모듈에서 직렬별 샘플 문항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NCS 학습 모듈이 아직 수험생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채용 공고 및 필기시험 안내 시 적극적인 홍보가 되었으면 한다.

NCS 필기 전형의 가장 큰 장점은 쓸 수 있는 지식을 공부한다. 주위 친구들이 필기를 준비할 때 늘 하던 말, “이거 도대체 어디에 쓰지..” 하지만 NCS 필기 전형은 다르다. 기안문, 전결 규정, 실무 상황 등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지식을 묻는다. 행정 경험으로

업무 역량을 쌓아왔고, 실무에서의 중요성을 알기에 준비하기에 한층 수월했다.

‘배우고 익히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공자의 격언대로 배우고 실무에서까지 익힐 수 있는 필기 전형의 관문을 통과했다.

3) 면접 전형, “이름 말하시면 안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필기전형에서 5배수로 선발, 면접은 2회에 걸쳐 이뤄졌다. 이에 비해 몇몇 공공기관에서는 필기 전형에서 채용인원의 3배수로 선발, 1회 면접으로 진행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면접 전형에 비중을 둔 전형으로, 나만의 역량을 어필하고 면접관 역시 지원자를 심층적으로 살필 수 있었다. 이렇듯, 보다 효과적인 공공기관-구직자 간 인력 매치를 위해 면접 전형의 확대를 제안해본다.

압박면접이 아닌 ‘맞춤면접’으로 진행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내 자리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셨다.

이름조차 언급이 금지된 면접장에서 내가 느꼈던 학벌, 배경에 대한 콤플렉스는 일언반구(一言半句) 없었다. 현장의 중소기업인과 악수하면서 느낀 거친 손의 감촉, 업무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정책과 관련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를 위해 기여할 역량에 대해 소신있게 답했다.

지방대 거북이, 나는 이렇게 200:1의 경쟁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에 내 자리를 마련하였다.

NCS, 실무의 동반자로서 함께 하다.

NCS, 취업과 함께 안녕일 줄 알았다. 하지만 반대였다. NCS는 동반자로서 아직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

경영 지원 직무 능력을 위해 쌓아온 경험은 중소기업 재직자 연수 업무 간 사업체의 입장을 파악하여 목표 인원 대비 초과 달성을 이뤘다. 또한 컨설팅 역량 함양을 위해 익혔던 조사 기법은 실제 사업 수요 조사에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NCS는 끝도 시작도 아닌 실무 동반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블라인드·직무능력중심 채용, 물 위의 거북이인 나에게 지방대라는 꼬리표를 멋지게 떨쳐주고, 내가 그리고 싶은 세상을 위해 바다로 나아가게 해준 너무나 고마운 존재이다.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 헌신하고자 한다.

03

진짜 나를 보여주기 위해, 나를 가리다.

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자, 그럼 2번 지원자께서 대답해보시겠어요?”라는 질문을 던져 받았다. 옆 지원자가 받았던 질문이 나에게 넘어왔다. 그 순간 면접장의 분위기는 부드럽지만, 적막이 흘렀다. 그렇게, 질문이 나에게 찾아오는 순간이었다. 다른 지원자들도 답변을 고민하는 듯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때 그 질문이 자세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하나는 기억할 수 있다. 그 질문에 내가 주저없이 대답했던 것을. 그 이유는 그 질문이 스펙을 보거나, 획일화된 질문보다는, 나의 자기소개서가 기반인 질문이었기에 질문을 받고 내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내용을 차분하게 말했다. 그러한 자신감은 면접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었다. 상투적인 대답이나 외웠던 뻔한 답변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면접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면접장을 나오며 아쉬움에 깊은 한숨보다는 오히려 미소를 머금을 수 있었다. 결국, 나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당당히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한 지 이제 3개월 정도가 되었다.

지방대생, 네가? 공기업을?

나는 그렇게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좋은 학력도 아니었고, 높은 어학점수를 가지고 있지도, 가산점 높은 자격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내가 지난 청춘을 허송세월로 보낸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남아있던 것도 없었다. 그게 바로 내가 마주한 현실이었다. 자꾸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도전했던 것들에 대해 실패하고 좌절했던 시간의 연속이었다. 내 주변에 많은

청춘들이 그랬던 것처럼 실패가 습관처럼 배어 있던 삶이었다. 자존감을 좀먹던 지방대라는 학력에서 오는 원망부터, 내가 예전 면접에서 했던 답변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부족했던 건 아닐까? 라는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는 실패감을 맛보던 시절이 있었다. 콤플렉스를 극복해보고자 퇴사 후 도전했던 시험에서도 실패를 마주하고 그렇게 좌절을 고스란히 느낄 새도 없이 난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나는 장남이자, 돌아가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가장이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곤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1년 반의 경력과 기사자격증이 전부였다. 그리고 다양한 회사들의 서류통과를 위해 따놓았던 너무나도 평범했던 어학점수. 그렇게, 취준생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

영겁(永劫)과 같은 탈락의 시간

몇몇 회사에 서류는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보기 좋게 최종결과는 줄줄이 탈락이었다. 사실, 서류합격을 했던 다른 회사와 필기시험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양자택일(兩者擇一)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선택했었다. 막연했던 자신감이 있었다. 자만했던 결과지만,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대한 첫 도전은 필기시험 탈락이라는 실패로 끝났다. ‘내가 너무 안일했었나?’라는 자책감이 밀려왔다. ‘혹시, 포기했던 그 회사를 봤으면 붙었을까?...’라는 푸념도 많이 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어딜 지원하고 시험을 보든 결과지 같은 마음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패배감을 느낄 만한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이전과는 다르게 준비했다. 절치부심(切齒腐心)의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전에는 사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공고가 보이는 대로 지원했지만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했다. 당시에는 ‘이 수많은 회사 중에 하나는 되겠지?’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선택과 집중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었다. 목표는 공공기관으로 정했다. 직렬도 전공인 기계공학을 따라 기술직으로 정했다. 지원하는 기관들의 기술직 직무능력은 거의 비슷했다. 그렇기에, 피드백조차 하기 힘든 사기업들의 자체시험을 준비하는 것보단 NCS를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 내가 원하는 직무만 뚜렷하다면 다양한 기관들의 성격은 다르더라도, 내가 지원하는 직렬에 필요한 직무능력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과는 다르게 필기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줄었다. 우리 기관과 같이 전공시험을 추가적으로 보는 기관도 있었기에 전공 공부와 병행하며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직무능력들을 집중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니 NCS공부를 할수록 필기시험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다.

재도전, 재도약 (Let's Get It)

2018년 상반기가 되고 다양한 기관들의 공고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한 번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문을 두드리기로 했다. 그렇게, 입사지원서를 작성했다. 지원서 작성 유의사항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도록 항목들을 적으면 안 된다는 안내문구가 눈에 띄었다. 혹여,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떠한 것을 누려왔고 어떠한 곳에서 수학했는지가 본인의 능력을 면접관이나 평가자들에게 좀 더 전달해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예외였다. 오히려, 나의 학력이나 배경이 면접관들에겐 부족한 지원자라는 선입견을 갖게하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실패를 계속 경험한 후에 나에게 오는 트라우마와 같은 생각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입사지원서는 내가 걱정했던 항목들을 적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각종 어학점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자기소개서처럼 내가 어떠한 가정에서 자라왔다거나 나의 장, 단점을 적는 등 직무와는 무관한 질문들에게는 칸을 내어주지 않았다. 내가 직무와 연관된 어떠한 과목들을 공부하고 경험했으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내가 가진 경력들, 자격증을 통해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를 질문했다. 내가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었다. 입사지원서를 써내려가며 나에 대한 가치를 나도 다시금 바라보게 되며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의 면접 방향까지도 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결국, 서류합격자 안내문자를 받았고 필기시험대상자가 되었다. 하지만,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이번 필기시험에 NCS는 보지 않고 전공시험만 실시한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준비를 했던 것에 대해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나중에 들었지만, 하반기 채용에는 NCS와 전공시험을 함께 치른다고 했다. 이번엔 막연한 자신감보다는 필기시험에서 떨어지지 않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런 고민이 있었기에 더 치열했고, 나의 마음을 좀 더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함께 입사를 준비했던 사람들과 서로

초초해하며 결과를 확인하였고 면접대상자가 되었다는 첫 문구를 받아들였다. 최종합격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지난 시험에서 넘지 못했던 “필기시험 통과”라는 소기의 목표는 달성했기에 너무나도 기뻐다. 그렇다고, 안주할 수는 없었다. 최종관문인 면접이 남아있었다.

면접은 총 2차례로 1차 토론면접과 2차 실무 및 인성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토론 면접은 처음엔 막막했던 부분이 있었다. 토론 면접이 무엇인지도 잘 이해하지도 못했다. 과연, 그 면접 속에서 나를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도 막연했다. 1차 면접장에 오는 날까지도 막연했지만, 오히려 당일이 돼서야 토론면접에 대한 막연함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 면접장에서도 안내자분들이 토론면접에 대해 안내를 해주시고 면접조원들과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 준비시간을 준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막막했던 토론면접에 대해 면접조원들과 준비를 하고 들어가니 흐름을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이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토론 진행의 흐름을 알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다른 조원의 발언을 경청할 수 있었고, 토론이라고 해서 단순히 찬반을 나누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해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었다. 그 과정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 같다. 며칠 후에 2차 면접대상자에 선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제는 내가 바라던 목표에 많이 가까워진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었다. 설렘도 부담감도 있었다. 2차 면접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성면접이자 실무면접이었다. 2차 면접은 글의 서두에서 작성한 것처럼 내가 작성한 입사지원서를 기반으로 시작했다. 사실, 근엄하고 엄중한 자리일 수도 있지만 면접관분들의 배려인지 우리가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지 분위기를 많이 누그러뜨리려고 하셨다. 기업마다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면접장에서 가장 위축되어 있을 지원자를 배려해준다는 느낌은 이제 기업이 수평적인 문화로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면접관분들이 질문하시는 것들 또한 입사지원서가 기반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성실히 적었다면 당황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도, 걱정이 되거나 면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 예상 질문 문답을 만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너무 큰 걱정 거리가 아니라는 듯 이야기하지만 막상 면접이 도래한 입장에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긴 힘들 것 같다. 역시, 나 또한 그랬다.

나의 경우에는 먼저 글로 예상답변을 작성했다. 그러나, 머리로만 생각하고 작성하다 보니 입에 익지 않은 단어들과 평소에 대화에서 사용하지 않는 문체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다보니, 말이 자주 꼬였다. 애초에 완벽히 짜여진 답변을 통째로 외워 준비한다는 건 나의 능력 밖이었다. 생각해보면 면접을 준비할 때 예상 답변을 작성한다는 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을 잘 정돈해서 면접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단어들만 간추려 단어의 흐름에 맞게 답변을 연습하는 것이 나의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 혹여, 연습하면서 기억이 안 나면 핵심키워드만 잠시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머릿속으로 그려가며 연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답변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았다. 이 방법의 장점은 어떠한 상황에도 준비한 답변들을 자연스럽게 대입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렇게 나는 최종합격 통지서를 받아들었다. 2년이라는 공백기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찾아왔다. 그 시간들을 끝마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시원섭섭하지만 또한 너무나도 행복했다.

취업마라톤의 종점, 인생마라톤의 시작점

합격자 발표 후, 문자로 신입사원 연수일정에 대한 설명이 날아왔다. 연수원에 가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취업이라는 문을 통과하기 위해 뛰어왔고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구나 싶었다. 나이도, 학력도, 경력도 정말 다양했다. 사실,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것이 나에게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동기들과 함께 연수기간 동안 동고동락하며 지내다보니 처음엔 잘 몰랐다. 그러나, 마칠 때쯤에는 잘 알 수 있었다. 블라인드 면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었고, 그러한 것이 우리 기관에 필요한 인재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나를 가리고, 진짜 나를 보여주었을 때 내가 가장 빛이 났다.

우리 모두가 청운(靑雲)의 꿈을 안고 사회에 나오지만 당연하다는 듯 성공보단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한다. 그러한 것들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얼마나 더 단단해져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는 않는다. 블라인드 면접은 그렇게 단단해져만 가는 나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었다. 나를 다른 선입견으로부터

배제하고 현재 성장 중이며, 더 많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인재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그것은 모두에게 주는 공정한 기회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나만의 경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도 정말 좋은 기회였다. 이제 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아갈 것이 틀림없다. 취업이라는 터널을 지나며 얻은 것은 직장이라는 것보다 실패가 두려워 도피하는 내가 아니라 마주하고 도전할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 더 크다.

나는 살면서 성공이라는 것을 경험해본 적이 별로 없던 삶이었다. 그렇기에 더욱 더 누군가에게 조언이라는 것을 할 경우가 없었다. 하지만, 좋은 기회로 수기를 적으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으로 설렌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누군가라도 공부를 하다가 집중이 잘 안돼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 글을 읽게 되었든, 취업준비를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읽게 되었든 이렇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바라던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고 잠시나마 위안을 삼고 잠시 일어나 물 한 모금 마시는 여유를 가질 쉼표가, 우리의 목표를 위해 다시금 진일보(進一步)할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

04

꿈꾸는 사회, 도전하는 채용

임○○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취업이 열려있다?

대학교를 다니는 4년 동안,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직장은 스펙, 학벌 등 특정 요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때문에 처음 블라인드 채용을 접했을 때의 놀랐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선배가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에 입사했던 합격수기,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해낼 수 있다는 도전정신으로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합격하여 일한 지 7개월, 이제는 제가 그 증인이 되어 후배들에게 꿈을 물려주고자 합니다.

4년의 청개구리 생활

“좋은 곳에 취업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스터디 짜고 어학점수, 자격증, 해외 활동, 학점, 단 하나도 놓쳐서는 안 돼.”

대학교에 입학하고 처음 선배들과의 만남에서 한 선배가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선배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시다. 오히려 대학생활 내내 청개구리처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취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경영학을 공부하라는 선배들의 말을 뒤로 한 채, 제가 돌보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학을 공부했습니다. 서류전형에 가산점 받을 수 있도록 유명 경제동아리에 가입하라는 조언을

듣지 않고, 교육현장에서의 경험을 쌓아올리고자 직접 교육봉사 동아리를 조직하였습니다. 취업에 필수적이라는 공모전은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 제게 관심 있는 분야인 HR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데 몇 달 동안 밤을 새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나고 졸업을 앞둔 무렵, 저는 취업과는 너무도 먼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리학과, 지방대, 토익 700점의 합격이야기

졸업을 앞둔 어느 날, 학교에서 블라인드 채용 설명회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제 눈에 가장 띄는 것은 설명회 참여 기념품으로 주어진다는 보조배터리였습니다. 물욕에 눈이 멀어 설명회 장소로 발걸음을 옮긴 저는 한 선배의 공기업 합격스토리를 들으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취업하기 너무도 힘들다는 문과, 그 중에서도 경영·경제학 전공이 아닌 심리학을 전공한 선배가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에 합격했답니다. 심지어 그 선배는 토익도 가까스로 700점을 넘겼을 뿐, 그 외 내세울 만한 스펙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설명회 강사는 더 이상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고스펙을 쫓 나열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과 해당 직무가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제를 하나 던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히 직무에 적합한 경험과 역량이 있으니,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키며 그것을 한 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대기를 작성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 없다, 쓸 내용은 많다

초등학교 때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을 정리하며 일대기를 작성했습니다. 교육기부 캠프에서 감정싸움을 하고 있던 팀원을 중재했던 경험은 대인관계능력이었습니다. 만들었던 제품이 하나도 인기가 없어 프로토타입을 들고 거리에 뛰쳐나가 사람들에게 설문을 요청하고 보완했던 점은 문제해결능력이었습니다. 한 학기에 7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간트차트를 작성하며 하루를 분 단위로 스케줄링 했던 경험은

자원관리능력에 속했습니다.

쓰다 보니 정말 쓸 내용이 많았습니다. 막상 취업을 준비하기 전에는 자기소개서에 한 마디라도 쓸 내용이 있을지 걱정했는데, 작성하다보니 오히려 내용을 줄이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곧 취업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으로 한두 군데씩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직무와의 연결고리

근거 없는 자만심으로 한두 군데 입사지원서를 찢어보는 모습에서 예상할 수 있었지만, 첫 입사지원서 제출의 결과는 소위 말하는 ‘꽁속탈락’이었습니다. 그러나 탈락했다는 결과에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오기가 생겨 입사지원서 제출을 스무 군데, 서른 군데로 늘리고 스티디도 시작하였습니다. 또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방문하여 문제점을 진단받기도 했는데, 이 때 파악했던 제 문제는 지금껏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이야기만 담았을 뿐 채용기관이 어떤 조직인지, 무슨 인재가 필요한지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이후 채용기관과의 직무, 제가 가진 역량과 경험의 연결고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전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남들에게 도움을 주며 보람을 느꼈기 때문에 타인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교육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에 교육학을 복수전공하기도 했고, 직접 교육봉사 동아리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겐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때문에 대학에서 심리학 강의를 들었을 때는 사람을 매개로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는 HR 평가도구를 몇 달 동안 밤을 새며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게 적합한 직무는 사람을 관리하고,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인사직무였습니다. 이후 인사직무로 직원을 채용하는 기관을 찾으며 집중적으로 입사지원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인사직무로 채용을 진행하는 기관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전처럼 무분별하게 지원했을 때보다는 훨씬 높은 합격률로 서류전형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했던가요. 6개월 동안의 취업준비, 50군데 이상의 입사지원서 끝에 저는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인사팀으로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처음 출근하며 긴장된 상태로 어떤 벡타이를 매고 갈지 고민하던 날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입사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바쁜 아침에 벡타이를 고르며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기관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상황인지 제게 문의합니다.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할지 추천해달라고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저는 기관을 대표해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모습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단순한 문의사항에도 관련 규정과 법령을 비교해가며 답변하기도 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공부하며 직원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기획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며 공부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지만, 제게 도움을 받고 고마워하는 직원들을 볼 때면 내게 꼭 맞는 직무에 잘 들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2019년도를 준비하며 18년도 교육현황을 정리하고 새로운 교육훈련계획을 짜고 있는데, 대학시절에 수강했던 강의와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공학 시간에 배웠던 학습자 분석은 다양한 직군의 직원들에게 적합한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척도를 개발하고, 설문지를 뿌렸던 경험은 18년도 교육현황을 정리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일이 없거나 한가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받고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 행복합니다.

꿈꾸는 사회, 도전하는 젊음

혹자는 블라인드 채용이 아무런 스펙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 깜깜이 채용이 아닙니다. 직무관련성으로 지원자를 평가하다보니 직무와 연관되지 않는 쓸데없는 스펙을 채용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러한 점이 오해를 부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블라인드 채용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만큼 더 뛰어난 스펙이 필요합니다. 해외영업직군이라면 외국어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어학점수가 필요할 것이고, 기술직이라면 기술 전문성을 보일 기사 자격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며 취업준비생들에게는 기회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기관의 입장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관에 적합한 뛰어난 인재를 선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직무에 관심이 있고, 관련 역량으로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뽑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기관은 블라인드 채용 후 퇴사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취업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제가 현재 공공기관을 다니는 게 마치 꿈만 같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덕분에 이전에는 상상도 못 할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꿈꾸는 사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 수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와 도전이 되길 바라며, 꿈꾸는 사회, 도전하는 젊음 파이팅!

블라인드 채용으로 구원받은 삶, 公利를 위하여.

김○○ 한국주택금융공사

2015년 4월, 31세라는 늦은 나이에 전역을 하고, 그 뒤로 사법시험이 폐지되기까지 법학을 공부하였습니다. 마지막 사법시험 발표가 있던 2018년 10월, 파란 가을 하늘이 그렇게 어두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걸었던 공원, 차가운 바닥의 마른 낙엽 부서지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사무치게 들립니다. 저에게 사회가 원하는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 할 만한 것은 700점이 겨우 넘는 국가고시 자격용 토익 점수가 전부였고, 나이 또한 30대 중반에, 배경이나 인맥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나마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는 법학 지식, 건전한 가치관이나 사회성 따위는 사회가 요구하는 정량화된 스펙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저와 같은 사법시험 낙오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긴 교육기간과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한 로스쿨, 또 다시 고행을 겪어야 하는 행정고시나 기타 자격증 준비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저에게는 시간적인 여유도 금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결국 취업을 선택해야 했으나 관료사회에서 제 나이를 반기는 조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법학 직렬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있었으니, 바로 지금 재직 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였습니다. 후에 들으니 당해 채용은 가까스로 총원이 결정된 것이었다고 하니, 돌이켜보면 인생에 있어 몇 번 없을 절호의 기회이자 구원의 손길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러나 막상 손에 쥔 것 하나 없이 당장 취업을 준비하려고 하니 막막하기만 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비친 한 줄기 희망은 바로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NCS라는 용어조차 생소했으나,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직무기술서를 꼼꼼히 읽어보니 어느 정도의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어 있어 저와 같은 신규 지원자도 체계적인 준비가 가능하였으며, 연령과 배경 기타 스펙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고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잃었던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었습니다.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준비함에 있어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NCS 평가 방식에서는 효율적인 대비가 가능했습니다. 직무기술서를 토대로 금융 법학에서 요구하는 즉 민사법 전반과 민사 집행 실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학습하였고, 금융 여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금융 상식을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에서는 정부부처에서 운전병 임무를 수행했던 경험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중시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가치관을, 아르바이트와 사법시험에 응시했던 경험을 언급하여 금융기관에서 강조하는 CS 정신과 성실한 업무 태도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비록 모든 전형에서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결국에는 그 압담했던 현실에서 불과 2개월 만에 밝은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 능력과는 별개로,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없었더라면 지금도 여전히 고시낭인으로 신림동 거리를 헤매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입사한 후로 지금도 국가와 공사에 감사하고 국민에게 보답하는 마음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직장으로 수원 소재 경기남부지사에 발령받아 지금까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의 모기지론 심사와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의 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무는 모두 공통적으로 대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객체로 하는 것으로, 물권법 및 채권법 전반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업무인 만큼 지식적인 측면에서 적응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사 특성상 매일 다양한 대민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제 특유의 친화적 성향과 공익 지향적인 가치관, 그리고 앞서 언급한 국가와 공사에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맞물려 별다른 애로나 스트레스 없이 직장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는 주택연금의 홍보와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종류의 업무는 처음 접해보는 것이라 처음에는 어렵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하며 주택연금 제도에 대하여 점차 이해하게 되고, 노후 복지가 아직 완전하게 자리 잡지 않은 반면 고령층의 부동산 자산 비율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주택연금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자, 그 뒤로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동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부수 업무라 할지라도 확실한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상황이 모든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지적 능력이 뒷받침된다면, 저는 가치관이나 태도적인 측면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유로, 공공기관의 특성상 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할 장치가 부족하고 그만큼 개인의 능동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로, 공공기관 업무는 모두 고유의 공익성을 가지고 있어 업무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을 유념하지 않으면 방향성을 상실하고 방만하게 처리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의 봉사자적 지위에 있음을 망각하고 본인이 수혜적인 복지를 베푼다고 오해하게 되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나아가 국가의 신뢰를 훼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식적인 측면은 필기시험과 직무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등에 국한하여 필요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하되, 지원자의 경험과 태도를 토대로 심층적인 가치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많은 채용에서 활용되는 토론 방식과 성과 창출 방식의 집단 면접은 바람직한 평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적 자원이나 예산상의 한계로 인하여 이러한 방식 위주의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공공기관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관부처에서 응용심리학이나 인적자원 관리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지원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채용에 필요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하는 등, 전형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본래 차별적 요소의 배제에서 출발한 제도이지만, 채용의 근원적인 목적은 조직과 업무에 적합한 직원을 발굴함에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의 결과물에 대하여는 아직 충분한 자료가 누적되지 않아 기관의 운영과 국가 경제 차원에서 어떠한 양적 효과가 있었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단계입니다. 평등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지키면서도, 기관 업무에 보다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여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블라인드 채용의 최대 과제일 것입니다.

저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의 수혜자이지만, 기관과 국가 또한 저를 채용함으로써 어떤 조그마한 발전이라도 이루게 된다면 기관과 국가 또한 동 제도에 의하여 수혜를 입고 公利(公利)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간다고 할 수 있는 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저는 지금도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저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러한 순환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더욱 발전하기를 소망하며 글을 마칩니다.

당신이 곧 브랜드입니다.

이○○ 한국수력원자력(주)

취업을 원합니까? 그러면 두드리세요. 문이 열립니다.

작년 10월 전력그룹사 합동 채용박람회에 한국수력원자력 신입사원 대표로 참여해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1:1 취업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취업준비시절 이러한 박람회에 참여해 입사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던 때가 있었는데, 후배들에게 취업 정보를 알려주는 입장으로 채용 상담 부스에 앉아 있다는 게 무척 감격스러웠습니다. 저 역시 NCS 채용 방식으로 입사하여 취업준비생들의 간절함을 알기에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 중 가장 아쉬웠던 점은 NCS 기반 채용방식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여 여전히 도전해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후배님들의 구직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열정적으로 도전하여 회사에 합격한 저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꿈을 꾸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며 미련 없이 달려가자

연일 취업이 어렵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뉴스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어학연수와 다양한 자격증, 대외활동 등 화려한 스펙도 이제는 변별력 없다 합니다. 취업 준비카페에선 학점과 토익을 곱하여 3600이 되어야 하고 명문대에 각종 자격증, 해외 어학연수 경험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같이 자격증이나 인턴 경험 하나 없는 지방대생이 공공기관 취직에 도전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NCS라는 새로운 취업 방식이 등장했을 때도 “또 뭘 준비해야 하는가?”, “지금

도 힘든데 또 다른 스펙을 쌓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피를 못 잡던 그때 ‘공공기관 합동 채용박람회’ 개최 소식을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곳에서 NCS 기반 채용 절차와 방법 그리고 최근 취업한 분들께 취업상담까지 받으니 막막한 취업 준비과정에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학비 마련과 학업을 병행하였기에 화려한 스펙을 쌓을 수 없던 저에게 NCS 기반 채용방식은 바늘구멍 같은 현실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 단계씩 준비했던 나의 흔적

한수원의 입사 전형은 서류전형→필기시험전형→심리건강진단→면접전형→신체검사 순입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NCS 기반 채용 방식을 적용하여 직무능력 중심으로 선별하기에 나이, 성별, 전공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 서류전형

“자기소개서는 자소설이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고 경험했는지를 화려하게 적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NCS 기반 자기소개서 문항을 보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오직 지원 직무와 관련된 가치관과 경험에 대한 질문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분야의 경험이 있는지 물을까?”

처음 자기소개서 문항을 보고 들던 생각이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서류든 필기든 면접이든 결국 회사가 원하는 인재를 찾는 과정이라 판단되어 회사 입장에서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인재상, 회사비전, 경영방침까지 생각을 확장할 수 있었고 제 경험과 가치관에 적용하여 담담하게 답변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스펙이 아닌 “직무”와 밀접한 경험, 가치관, 능력에 대한 문항들이었기에 한국 문화관광 가이드,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통역, 지역아동센터 재능기부 봉사 등과 같이 화려하진 않아도 기본을 바탕으로 한 경험으로 답변을 채웠습니다.

만약 취업준비생들께서 NCS 기반 자기소개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채용공고 마지막에 첨부된 직무 설명 자료를 꼭 읽어보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그 설명 자료는 서류접수부터 면접까지 채용 전 과정의 길라잡이로 준비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직무해설서를 자주 보며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2차 필기전형

1차 서류전형은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필기전형부터 본격적인 입사전형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기에 준비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달리 해야 합니다.

2차 전형은 공부할 분야가 다양해서 준비하는 데 가장 어려웠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험 특성상, 문제를 이해하고 신속히 답을 찾아내는 방법 익히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준비는 크게 전공 관련, 한수원 관련, NCS 관련으로 나누어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공 분야는 매일 1시간 이상 자격증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기본 개념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 회사상식 분야는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틈틈이 정독하며 한수원 비전과 목표 등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NCS 관련 분야는 먼저 NCS 학습모듈을 통해 직무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과 해결방안에 대해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그다음 최신 경향 문제집으로 유형별 문제접근법을 익혔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올바른 접근 방식으로 유형별 풀이 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기시험에서 제 준비 전략이 통하였는지 전공과 한수원 상식 분야는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NCS 관련 문제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어느 합격 수기의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문제로써 접근하지 말고, 그 상황에 처해있다고 가정하여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 것입니다.” 소신껏 문제 상황에 대한 제 행동을 답한다고 생각하니 한결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반갑게도 2차 전형 합격문자를 받았습니다.

3차 면접전형

본격적인 면접 준비에 앞서 각종 공공기관 면접 수기를 찾아봤습니다. 여태 들은 것처럼 화려한 스펙으로 합격한 사람들의 경험담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면접 수기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지원직무와 관련된 가치관과 경험에 대한 답변으로 합격한 수기들이었습니다.

면접 준비에서 처음 한 일은 '방향과 방법 정하기'였습니다. 지원 분야에서 갖춰야 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NCS 기반 채용 직무 설명 자료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출했던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보며 내 장점과 특징, 직무 연관성 등을 깊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회사 비전, 경영방침, 원자력 산업 현황 등 회사에 대해 심도 있고 다양하게 분석했습니다. 준비과정에서 가장 효과 있던 방법은 면접스터디에서 한 면접 연습이었습니다. 면접자와 면접관, 두 입장 모두 경험하며 자기소개서와 제 가치관에 대한 더 진솔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은 총 4가지로 개별 면접(직업기초능력면접, 영어면접)과 집단 면접(직무수행능력면접, 창의면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개별면접에서는 NCS 기반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행히 모의 면접에서 예상하며 준비했던 질문들을 받아 더욱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단면접은 직장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말 예상 못했던 주제를 받았기에 긴장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꼭 정답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면접관의 조언에 담담하게 제 견해를 말하며 토론했습니다. 집단면접의 목적이 협조성, 적극성, 리더쉽 등 공동 목적 달성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였기에 면접 연습이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라

주변에선 저의 합격이 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취직의 영광은 결코 운으로만 얻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방향으로 꾸준한 노력을 하였기에 NCS 기반 채용방식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원하는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Now, Concentrate on your Strength.”

지금, 네 강점에 집중하라.

제 수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바로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제게 NCS는 바로 Now, Concentrate on your Strength이기 때문입니다. 입사 준비를 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적성에 맞는 일이 뭔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NCS가 무엇인지, 채용방식이 어떻게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정확한 방향을 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수많은 고민과 생각 끝에 당당히 ‘최종합격’이라는 문자를 받을 수 있었고 지금도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 즐거운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스펙 쌓는 데 시간을 쓰지 말고 NCS를 통해 자신의 장점과 가치관에 대해 고민하며 취업 준비를 한다면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의 문을 두드리세요. 그리고 당신의 가치를 보여줄 기회를 준비하세요.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신감으로 도전한다면 취업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사회에 빛나는 인재가 되길 바라며 저의 취업 사례가 살얼음판 같은 취업전선에 파스 한 연탄불이 되어 언젠가는 이곳이 여러분들의 취업 성공담으로 가득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직 패션디자이너 ICT 공공기관에 입사하다.

김OO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 제목은 내가 수 없이 많이 작성했던 자기소개서의 제목으로 썼던 제목이다. 중학교 때부터 패션업계종사자가 꿈이었던 나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학입학원서를 전부 패션관련 과로 접수하였고, 의류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가족들의 우려대로 힘들게 취업했지만 열정페이로 받으며 힘겨운(?) 서울 생활을 했다.

업무과다에 몸도 마음도 지쳤고 스트레스를 받은 탓인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하였다. 다행히 주말 밤에 고향에서 쉬고 있던 중이라 바로 회사에 연락해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아 하루 쉬어도 되냐고 물어보니, 돌아오는 답변은 걱정스러운 말 한 마디도 없이, 병원에 갔다가 바로 서울로 올라와 출근하라는 답변이었다. 이 때 나는 단단히 결심했다. ‘직원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인정을 해주는 곳으로 가자.’ 라고..

그 흔한 토익점수도 없던 나는 도저히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할 자신이 없어 회사를 그만두었다. 당시 업무를 재밌게 곧 잘했던 터라 동료들이 아쉬워했지만 내가 택한 일이라 내 자신을 믿기로 했다. 그리고 남들이 다 따는, 공기업·공공기관에서 필수로 요하는 자격증을 하나씩 취득하기 시작했다.

확장시절부터 공부는 늘 중간 정도만 했고, 벼락치기가 먹히는 스타일이 아니라 남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딱 두 배는 더 해야 했다.

필수 자격증을 다 취득하고 나니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었다. 자격증만 따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큰 오산이었다. 디자이너로 일했던 경험만으로는 날 서류전형에서 뽑아주는 공기업·공공기관은 거의 없었다. 계속되는 탈락에 ‘다시 디자인업계로 돌아가야

하나..포기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대학교 과 선배 중 한 분이 한국전력공사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듣고,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을 했다. 알고 보니 그 선배는 몇 년 전 한국전력공사에서 6개월 동안 청년인턴으로 근무했고, 그 후 공기업에서 처음으로 ‘시간선택제’라는 근무형태를 만들었던 해에 한전에 지원하여 합격했다고 한다. “왜 한전에 들어오고 싶나요?”라는 면접관의 질문에 “패션디자이너가 한전에 다니면 더 멋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선배의 합격스토리가 나에게서는 희망 반, 절망 반으로 느껴졌다. 전공은 상관이 없다는 희망과, 나도 시간선택제처럼 틈새시장을 노려야만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절망.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청년인턴부터 해보라는 선배의 조언에, 마침 한전에서 청년인턴 모집공고가 떠서 지원했고 운 좋게 면접까지 볼 수 있었다.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탈락이었다. 몇 달 전 서울시 산하기관인 디자인관련 공공기관의 최종면접에서 탈락했던 경험이 있었던 터라 더 많이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였고, 탈락 소식에 조언을 해주었던 선배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해버렸다. 하지만 선배는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했다. 그리고 꼭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보라고 했다. 큰 위로는 되지 않았지만 나를 믿고 기다려주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다. 그 후 마음을 다잡고 취업준비에 매진하고자 휴대폰 번호도 바꾸었다.

며칠 후, 어느 때처럼 집 앞 도서관에서 공기업·공공기관 입사 스터디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경비실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한전에서 청년인턴 추가 합격이 되었다고, 빨리 연락을 바란다는 소식이었다. 탈락 후 속상해 휴대폰 번호를 바꾸어버린 탓에 연락이 안되자 한전 인사 담당자 분께서 지원서에 쓴 주소의 경비실에 연락을 하신 것이었다. 인턴이지만 첫 합격 소식에 너무나도 기뻐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꼭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직원 분들의 업무 서브에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했다.

그렇게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어마어마한 경험을 얻었다.

디자이너로 일하며 수많은 일들을 해봤는데 특히 고객을 상대하는 일을 재미있게 했던 나는 현장에 나가 많은 고객에게 한전을 홍보하는 업무를 맡아서 했고, 창구에서 지사에 내방하는 고객을 응대하고 전화로 요금납부 안내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턴을 하면서 나는 고객을 상대하는 일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전에서 인턴 후 여러 공기업·공공기관에 지원하였지만 사무직에 지원하다보니 행정직 관련 전공도 아니고 교육사항도 해당되는 것이 없다보니 서류가 쉽게 붙을 리가 없었다. NCS제도가 도입되어 서류는 합격해 NCS시험을 보더라도 시험에 붙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취업준비 기간이 점점 길어지니 너무나 초조해졌다. 자신감도 계속 하락했고 급기야 사기업까지 '묻지마 지원' 식으로 서류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서류지원을 기존 지원 수보다 1.5배 정도 늘리니, 서류 합격률이 더 높아지긴 했다. 그래서 자연스레 면접 준비를 많이 하게 되었고, 실제로 면접을 여러 번 보게 되었다. 공기업·공공기관을 준비하던 내가 방송국과 항공사 스튜어디스 면접까지 봤으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기업·공공기관 취업준비 카페인 '공준모'에서 'AI면접'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의 채용공고를 보게 되었다. 바로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신입사원 채용공고였다. 기본적인 면접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있던 나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했고, 운 좋게 AI면접을 보게 되었다. 홈페이지에 AI면접에 대한 내용과 시뮬레이션 영상이 친절히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몇 번의 연습 후 편하게 면접에 응했다. 솔직히 응해야 한다는 말에 솔직하고 나의 진심을 담아 면접 내내 웃는 표정으로 답변했다. 기대도 안했고, 떨어져도 괜찮다는 편한 마음으로 봐서인지 또 운 좋게 AI면접 전형에 합격하여 최종면접에 가게 되었다. 블라인드 채용이었기 때문에 나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면접 내용 중 한 가지 생각나는 질문은 '전공이 무엇이며, 자신의 전공과 KCA의 업무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였다. 나는 내 핸드캡이면서도 무기라고 생각하는 '의류학을 전공하며 판매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하여 사회에 나가서는 옷·제품을 디자인하고, 직접 구매자와 소통하는 등의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 잦았고, 그 경험으로 한전의 고객지원부서에서 인턴을 한 경험이 있으며 그 경험을 토대로 KCA에서 내·외부 고객 응대를 잘할 자신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나는 지금 KCA에서 6개월째 일하고 있다. 나의 강점을 이용해 회사의 총무팀에서 내부고객인 직원 분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업무들을 하고 있다. 특히 의류학을 전공한 덕에 전 직원 근무복 제작 업무를 맡게 되었고 전공자니까 믿는다며 믿고 업무를

맡겨주신 팀장님께 정말 감사하다. 또, 취업 준비를 할 때부터 나의 버킷리스트였던 ‘취업 멘토’ 역할도 두 번이나 할 수 있었다. 전남 지역 채용 설명회에서 대학생들의 취업 멘토가 되었는데, 내가 취업 준비생이었을 때 나처럼 특이한 전공을 가진 공기업·공공기관 재직자를 만나볼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꼭 공기업·공공기관에 입사하면 나처럼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들에게 꼭 도움과 희망을 주고 싶어 자진해서 하게 되었다. 덕분에 나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도 된 정말 뜻 깊은 경험이었다.

이처럼 나는 올해 1월 1일에 새해 다짐으로 썼던 2018년에 꼭 할 일을 다 이루었다. 첫째, 취업 성공하기. 둘째, 취업 멘토가 되기. 셋째, 엄마랑 단 둘이 여행가기, 넷째, 혼자 외국으로 여행가기.

의류학을 전공하였지만 짧은 경력으로 전문 디자이너도 아닌, 공기업·공공기관 행정직에 어울리는 사람도 아니었던, 탈락에 익숙했던 다소 어두웠던 과거(?)를 가진 나를 이제야 제 웃을 입은 듯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으로 여기게 해준 ‘블라인드 채용’에 감사한다. 앞으로 또 취업 멘토를 할 기회가 있다면 후배들에게 이 수기를 공유해야겠다. 이 수기는 순도 100% 사실인 내용이고, 중소기업에서 열정페이로 받으며 디자인 일을 했던 나도 이렇게 해냈고, 모든 경험에서 자신의 강점을 찾아 자신을 뽐내면 언젠간 알아주는 곳이 꼭! 있을 것이라고 말해줄 것이다.

III

유연근무제

- 1 전환형 시간선택제, 미래를 앞당기는 용기
- 2 일과 가정: Win-Win 전략, 유연근무제
- 3 내 이름을 찾아준 시간선택제
- 4 시간선택제, 긍정적 나비효과와 시작!!



01

전환형 시간선택제, 미래를 앞당기는 용기

라OO 한국국제협력단

출산 2주 전까지 출근할 만큼 일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나에게, 시간선택제는 “이제 나는 애기엄마”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과 같았다.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먼저 든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생각의 전환이 필요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앞당기는 용기있는 한걸음을 내디뎌 보자. 어쩌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한때는 꿈과 커리어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직장인이 되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야 한다는 현실과 마주하며, 나는 시간선택제를 향해 용기 있게 한 걸음을 내디뎠다.

#보낼 곳도 고를 곳도 없는, 난생 첫 어린이집 입소전쟁

시간선택제의 출발은 난생 첫 어린이집 입소전쟁이었다. 직장 어린이집은 그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많아 ‘정원 초과’ 통보를 받았다. 준비בק기로 ‘대기 3번’을 받았지만 순번이 올 기미는 보이질 않았다. 종일 보육이 가능한 민간·국·공립어린이집은 이미 대기가 딱 차서 2-3년 후에나 연락을 주겠다고 한다. 양가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기에 손녀딸 양육을 대신할 상황도 아니었다. 연일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에 몇 백조원을 쏟아 붓는다고 하는데, 정작 내 아이의 보육현실이 이렇게 어려운 줄은 아이를 낳고서야 절감했다.

육아종합포털을 밤새 뒤적이며, 집과 가까운 민간어린이집 10곳을 추렸다. 좋은 어린이집은 고사하고, 맞벌이 자녀라고 거절만 당하지 않으면 좋겠다 싶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저희 원은 9시 30분부터 등원하고 오후 3시 이후부터 하원해요.” “아침 일찍은 저희 선생님들이 안 나오셔서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갓 12개월을 넘긴 아이를 일찍 맡기고 늦게 데리러 갈 수도 없고, 혼자 덩그러니 남아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을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졌다.

#몸져누운 친정엄마, 응급실에 실려간 남편

결국 왕복 10시간 거리의 창원에 계시던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어린이집 등하원만 도와주셔도 사정이 나아지리라. 하지만 고향을 떠나온 지 두 달째 접어들면서 친정엄마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고, 두발로 오셨지만 네발로 실려 가듯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셨다. 결국 남편과 내가 “우리 둘이 잘해보자!” 다짐했지만, 철인경기에 나갈 정도로 건강했던 남편은 일과 육아로 과로하다 응급실에 실려가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나는 예고없이 아픈 아이를 위해 수시로 휴가를 써야 했고, 복직과 승진시험, 육아로 삼중고에 시달리며 건강이 악화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내가 회사를 관두면 모두가 편안해질까?” 육아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던 일을 그만두어야 할지, 이렇게 경력단절의 길로 들어서야 할지 진지하게 고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인사실을 통해 “최근 우리 회사에 **전환형 시간선택제**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일·가정 양립, 일자리 활성화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시간선택제 근무’가 신설되었다는 것이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100% 승인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고 한다. 총 4가지의 운영방식(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스마트 워크 근무제)이 있고, 각 제도별 운영방식, 승인절차, 장점 등에 대해 매우 자세히 나와있었다. 특히 신청과 승인절차 역시 간편했고, “근무평가, 전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금지” 하도록 하는 지침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심리적 장벽이 사라졌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용기있는 한 걸음

“라 대리, 지금 시기에는 아이가 먼저예요. 둘 다 잘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좋은 부서장님의 열린 생각, 부서 동료들의 응원에 힘입어 나는 다시 출발선에 섰다. 오전 10시 출근, 오후 4시 퇴근하며 물리적인 시간이 확보되니 저절로 에너지가 생겼다. 해가 떠 있는 오후 4시에 퇴근하여 정장에 구두를 신고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 있으면서, 이런 내 모습이 어색하기도 했다. 말로만 듣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삶이 있다는 것은 온 몸으로 느낀 순간이었다.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면서 좋은 성과도 거두었다. KOICA 글로벌연수 기획실에서 개발도상국 대상 공무원 국내 초청 연수기획업무를 맡아 베트남, 콜롬비아 등 개발도상국 외국인 공무원들을 초청해 대국민 오픈세션을 개최하였고, KBS 등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최근에는 글로벌 연수사업 참여희망 기관 대상 1:1 맞춤형 사업제안서 CS 컨설팅을 추진해 부서 CS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어떤 직장에 다니길래 이 시간에 퇴근하세요?”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면서 이 질문을 참 많이 받았다. 시간선택제가 있지만 실제 쓸 수 있는 조직문화가 조성되지 않아 사표를 낸 이들, 아이 키우기 좋다는 학교 선생님이로 일하지만, 정작 하루종일 수업하기 바빠서 내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다는 이들. 우수한 교육을 받고 사회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제도적 한계 앞에서는 선택의 제약이 분명한 이들의 상황은, 지금도 나의 일처럼 마음 아프게 느껴진다. 일·가정 양립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었는지, 겪어보지 않은 이들은 모르는 삶의 이면이었다.

시간선택제 정착,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영역까지

시간선택제가 공공기관만의 혜택으로 끝난다면 반쪽자리 정책이고,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뿐이다.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영역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3가지가 필요함을

느낀다. 첫째, 기관의 강력한 추진 의지. 둘째, 제도를 장려하는 문화. 셋째, 제도 정착을 위한 개인의 노력이다.

첫째, 시간선택제 제도를 장려하는 기관에게 고용예산지원, 세제혜택, 경영평가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여 자발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근속연수 보장, 승진의 균등기회 제공 등 인사규정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아울러, 승인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간선택제 수요자의 심리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제도를 장려하는 조직 내 문화 정착이다. 현재 근무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2015년 가정친화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로 정해 정시 퇴근하고, 격주 단위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시행해 오후 4시 퇴근을 장려하고 있다. 육아휴직 2년, 배우자 휴직확대, 유연근무제 시행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근로자들의 다양한 환경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정책과 이를 장려하는 문화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러한 흐름에 맞춰 매년 시간선택제 근무자도 증가 추세에 있다.

셋째, 노동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이다. 내 경우, 오전 10시-오후 4시 근무를 하며 시간 내에 업무를 끝내야 한다는 목표가 생겼고, 오히려 업무효율이 더욱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업무에 집중하며 노력하는 모습에 오히려 주변 동료들이 고맙게도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기도 했다.

#유연근무제, 여성과 육아의 한계를 넘어

다만, 시간선택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자 하는 ‘여성’이 주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느낀다. 이른바 ‘사내 눈치법’으로 남성들이 시간선택제를 쓰는 것은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다. 따라서 향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사례들을 적극 발굴하여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고, 제도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뒷받침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유연근무제는 “여성, 육아, 가족친화적” 어젠다에 머물러있는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현재의 낮은 이용률 극복이 어려운 현실이다. 외국의 경우, 유연근무제는 새로운 인재를 확보하거나 기존 우수인력 유지를 위한 “인력 관리수단”으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유연근무제는 업무의 생산성, 효율성을 강화하고, 최종 성과를 강조하는 전략으로 확산되어야 하고, 투입시간 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혁신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 중심의 정책, 우리 사회 경쟁력 확보 지름길

근무형태 패러다임 전환이 근로생산성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는 수없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모든 근로자의 생활 여건이 다름을 이해한다면, 동료들의 인식전환이 있다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좋은 사례들이 수반된다면, 다양한 근무형태가 우리 사회에 순조롭게 정착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이가 부모를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것,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 일하는 부모를 차별하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중심에 시간선택제 제도는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 중심의 정책’이 모였을 때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욱 역동적인 사회로 만들어나가는 지름길이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일과 가정: Win-Win 전략, 유연근무제

김○○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올림픽대로 위에서의 전화 한 통...

2018년 2월 5일 월요일 아침,

저는 회사 출근을 위해 평소와 다른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꽉 막힌 올림픽대로 위를 운전하며 가고 있었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감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울리는 전화 한 통...

만삭의 몸을 이끌고 있는 와이프의 전화였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쯤이야? 병원가야 할 것 같아”

“엇! 많이 아파? 지금 차량 돌려서 금방 갈게”

“어느 정도면 올 수 있을 것 같아?”

“20분? 최대한 빨리 갈게. 많이 아프면 지금이라도 구급차 불러”

“구급차 부를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빨리 와 줘”

출산 예정일보다 10일 정도가 빠른 진통이었습니다. 비상깜박이를 켜고 집으로 차를 돌려서 와이프를 태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사랑스러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초보 아빠에게 육아는 꿈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육아를 하기 전에 아기를 키우는 것은 마냥 즐겁고 행복한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는 제 내면에서도 사회적 인식으로 자리 잡혀 있는 ‘육아는 엄마의 책임

이고 아빠는 육아의 서포터'라고 생각이 자리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육아에 대한 인식으로 인하여 와이프와의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가슴 한 구석에 와이프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제 입장에서 회사의 업무, 회사에서의 역량 인정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육아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던 어느 주말 아침, 와이프가 갑자기 빈혈로 쓰러져 아기와 함께 응급실에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계기로 주말 내내 제가 아기를 돌보며 와이프의 독박육아에 대한 고뇌를 몸소 체험하면서 육아는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저의 편협한 육아에 대한 생각에 대해 스스로 반성했습니다.

‘유연근무제’ 신청, 하지만...

육아는 여성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같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저는 유연근무제¹⁾의 일환인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했습니다. 유연근무제 신청 당시, 회사에서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고 있던 직원이 2명에 불과했을 정도로 제도 활용이 미비한 수준이었습니다.

솔직히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했으나, 과연 그 제도의 취지대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었으며, 그 의구심 때문에 와이프에게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못했습니다. 이런 제도 활용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와이프와의 갈등은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일찍 출근하는 거야? 아침에 아기 깬을 때 그 잠시도 아기 보기 싫어서 일찍 가는 거야?”

“아니야. 사실, 회사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해서 일찍 가는 거야”

1)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운영 ‘유연근무제 제도’

1. 시간제근무: 1주일 동안의 소정근무시간이 전일제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것
2. 시차출퇴근제: 1일 8시간 근무하되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것
3. 근무시간선택형 근무: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주 40시간을 준수하여 주 5일을 근무하는 것

“그러면 일찍 가면 일찍 와야지, 왜 퇴근시간은 똑같아?”

“육아를 위해 신청했는데, 분위기가 애매해서 그래...”

“왜 바보 같이, 분위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거야? 그리고, 오빠가 복무 담당 아니야? 그 분위기, 바꾸면 되잖아!”

복무 담당으로서의 책임과 권리 이행

와이프의 말처럼, 저는 기관의 복무 제도를 기획하고 개선, 운영하는 복무 담당자였습니다. 복무 담당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날²⁾’을 기획·시행하는 등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저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와이프의 당연하면서도 단순한 말 한마디에 저는 ‘유연근무제라는 제도가 있지만, 활용률이 미비한 것은 분위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분위기를 바꾸고 저 자신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유연근무제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우선,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체계를 잡기 위해 ‘삶의 질 향상(위라벨 실현)’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이행해 나갔습니다. 1차적으로 노사발전재단의 ‘장시간 근로개선 컨설팅’ 수행을 통해 외부전문가를 통해 실질적인 유연근무제 활용에 대해 자문을 수행하며,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승인 및 자동육아휴직제³⁾ 도입, 연차 1시간 단위 사용 등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과연 유연근무제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관장도 유연근무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공감 및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하면서 조직 분위기가 바뀌어 갔습니다.

2) ‘가족과 함께하는 날’: 주 40시간 근무 유지 內 지정일 이전 초과근무 2시간 실시 후, 지정일 2시간 조기 퇴근 제도

3) 자동육아휴직제: 출산후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병행 신청할 수 있는 제도

그 분위기 속에서 유연근무제를 신청하는 많은 직원들⁴⁾과 저 자신의 실질적인 제도 활용을 위해 다른 직원들도 유연근무제 활용 직원을 알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안내 표지판을 만들어 자리에 부착시켜 그동안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무 후 당당한 퇴근임에도 눈치를 보며 퇴근하는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유연근무제를 책임지는 복무담당이자, 활용하는 수혜자로서의 권리를 동시에 이행했습니다.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전화벨 등 일상의 소음이 없는 조용한 아침, 사무실을 울리는 저의 키보드 소리...’
오후 5시, “민석 대리, 이제 예쁜 아기 보러 가겠네. 어서 들어가 봐”

지금은 저의 일상이자, 저의 부서의 일상이 된 유연근무제 활용을 표현해 주는 키보드 소리와 퇴근 인사입니다. 이처럼 유연근무에 대한 인식을 바뀌게 된 것은 조직 분위기 개선뿐만 아니라, 유연근무를 활용하고 있는 저를 비롯한 많은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일찍 와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효율성 제고가 가시적인 성과로 도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9시 의사결정을 받기 위한 보고서들이 저의 팀장 책상 위에 놓여있고, 업무 피드백, 의사결정 과정 속의 신속한 업무 진행 절차를 다른 부서들에서 부러워하는 걸 보니, 정말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오후 5시 퇴근으로 꽉 막힌 올림픽대로 위에서 소비되는 시간이 해소되기에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시간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하면 즐겁게 반기는 저의 와이프, 그리고 예쁜 아기의 ‘아빠빠빠, 아아아빠, 아빠~’ 목소리를 들으면 하루의 노곤함이 녹아내립니다.

물론, 업무로 인하여 연장 근무를 수행할 때도 있지만, 일상으로 스며든 유연근무제 덕분에 연장 근무에 대한 저 자신의 부담감이나, 육아에 끼치는 여파는 미비한 것 같습니다.

4) 유연근무제도 활용 직원 증가 현황(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 공시 '18. 3/4분기 기준)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3/4분기
시간제근무	4명	7명	9명	23명	43명
시차출퇴근제	5명	5명	2명	2명	22명
근무시간선택형 근무	이용 직원 없음				14명

유연근무제가 사회를 바꿀 수 있다

2018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개정 및 워라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유연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기관 역시 마찬가지였고,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무담당으로 제도 운영 및 이용하면서 느낀 점은 유연근무제 활용에 대해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전적으로 맡기며 운영하며 개인의 활용 유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활용을 독려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정책⁵⁾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유연근무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등의 직원들은 제도 미비⁶⁾ 등으로 유연근무에 대한 활용률이 낮습니다.

물론, 시간선택제 채용/전환, 시차출퇴근제 지원금 등 다양한 정부정책적인 지원은 있으나, 중소기업 등에서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홍보 및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스스로 일·가정이 함께 Win-Win하는 걸 경험했으며, 조직 역시 바뀌어 나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제가 소속된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역시 유연근무제로 바뀌어나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느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장인 및 사회가 공감하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A dream you dream alone is only a dream.

A dream you dream together is reality!”

“혼자서 꾸는 꿈은 단지 꿈일 수 있으나,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 Ono Yoko -

5)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⁷⁾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2022년 1,800시간대 근로시간 달성

6) 중소기업 유연근무제 도입 21%...도입 의지는 18%p 증가(아주경제, 2018. 11. 29.)

- URL: <https://www.ajunews.com/view/20181129083046159>

03

내 이름을 찾아준 시간선택제

박○○ 한국산업인력공단

결혼하고 1년 뒤쯤 기다리던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닐지 엄마 역할에 집중해야 할지 갈등하다가 더 좋은 엄마가 되기로 결심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 임신 중에도 다른 회사에 입사할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며 정신없이 살다보니 아이가 어느새 4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정말 사랑스러웠지만, 제 마음 한 곳에 무엇인가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년을 넘게 알고 지냈던 옆집 아이엄마와 서로 이름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제 허전함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내 이름을 영영 잃고 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함께 저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이가 아직 어린데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해도 아플 때는 어찌지 하는 마음과 야근하다 보면 꽤 늦은 시간까지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어야 할 텐데 하는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남편 역시 아직은 아이가 어리니 아이가 조금 더 크면 그 때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떠냐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다 자라고 나면 저는 중년의 나이가 될 텐데 청년들도 취업을 못하는 시대에 어디에서 저를 받아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자신감은 점점 더 줄어들만 갔습니다. 그렇게 매번 시도조차 못해보고 시간을 보내던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간선택제 직원을 채용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4시간 근무, 그동안 저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주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저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저 없이 지원했습니다. 필기시험이 걱정됐지만, 밤에 툼툼이 공부

를 해두었던 것이 도움이 돼서 1차 필기시험에는 무난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2차 면접시험 준비를 하고,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는 정말 기뻐서 아이를 안고 평평 울었습니다. 경력 단절과 몇 년의 공백은 자신감 결여로 이어졌고, 제가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당당히 시험에 합격해서 저의 일을 갖게 되니 정말 뿌듯하고 기뻐했습니다.

사실 입사에 앞서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면접관님조차도 면접 때 전일제 직원과의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질문을 하셨을 만큼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바라던 저의 일이 생겼는데, 극복하지 못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니 걱정도 금세 사라졌습니다. 4시간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와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전일제 직원이 섞여있어도 어차피 사람 사는 곳이니 저만 열심히 한다면 무엇이 그리 문제가 되겠는가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는 저와 가족에게 선물과 같은 시간선택제 자리에 저를 믿고 채용해 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퇴직을 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아이를 재우고 밤을 새서라도 공부해서 채우려 노력했고, 제가 남들보다 잘 하는 것은 언제든 도와드렸습니다. 누가 뽑았는지 아주 잘 뽑았다하시며 저를 공단의 보석이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전일제 직원과의 괴리감은 저의 기우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무는 저도 처음이지만 직접 접해보니 많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취지에 맞게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워킹맘이지만 아이보다 먼저 집에 와서 간식을 준비해 둘 수도 있고, 아이를 직접 하원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아이와 저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퇴근 후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 가고,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고, 놀이를 하며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으면서도 저의 일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늘 꿈꿔왔던 것이 실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2시에 퇴근 후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아이가 두 팔 벌려 안겨올 때는 정말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의 몰입도 상승으로 인한 능률 향상입니다. 사람이 하루 8시간을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4시간을 근무하기에 단시간에 고도의 집중력이 발휘되고, 일을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일하다 보면 능률은 자연적으로 향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입사 3년차에 찾아온다는 권태기가 5년차인 저에게 아직까지 찾아오지 않은 것은 하루 4시간을 집중해서 일하고 오후에는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저만의 시간이 있기에 회사에 보탬이 되는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업무 중에 정신없이 일에 집중하다 보면 업무 외에는 달리 새로운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 한걸음 떨어져 업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자주 생각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렇게 해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사내 제안제도에 다수 제안해 2015년에는 우수제안에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선택제 근무로 인한 삶의 여유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삶의 윤택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워라벨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낮 2시까지 집중해서 회사 일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지난 시간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해왔고,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써 역사를 바로 알고 싶은 마음에 역사 공부도 꾸준히 하여 한국사 능력시험 1급을 취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과 체력을 위해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며 보람도 찾고, 제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과 공부도 하고, 거기에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이와도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일석삼조입니다. 진정한 워라벨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로사회 탈출이 이슈인 요즘에 이런 삶을 누구나 누릴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간선택제는 어느 한 편으로는 질 낮은 일자리라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기사에 시간선택제 직원은 책임감이 없다, 보조하는 업무만 할 수 있다고 하는 댓글을 보면 조금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기관의 회계 업무를 2년 넘게 단독으로 맡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사 후 3년이 넘게 기관의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했으며 2018년 2월부터는 국정과제인 일·학습 병행과 전북 지역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업무를 성

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직원도 자기 업무에 책임감이 투철하며, 상황에 따라 조율하면 어떤 업무든 수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시간선택제라는 제도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7년 8월 한국산업인력공단 노조 위원장 표창과 같은 해 12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고민과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던 제가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아니었다면 제 이름으로 된 명함이 다시 생기고, 제 이름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제 이름이 적힌 표창장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저에게 찾아준 것은 이름만이 아닙니다. 일을 시작했을 뿐인데,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찾았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며 많은 동료가 생기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제가 노력해서 업무 성과를 달성하니 자신감도 생기고, 저의 일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시간선택제가 아니더라도 어디선가 일은 시작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저의 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워킹맘은 흔히 슈퍼우먼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선택제 워킹맘은 슈퍼우먼이 아니어도 좋은 엄마, 좋은 아내 그리고 좋은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사회적인 행복과 이름을 찾아준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저와 같이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에게 또 하나의 이름을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누구 엄마, 누구 아내이기 전에 박○○입니다.

04

시간선택제, 긍정적 나비효과와 시작!!

이○○ 한국전력기술

시간선택제, 그게 뭐야? 어떻게?

‘시간선택제’란 쉽게 말하면 근무자가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각 기관의 특성상 제도를 도입하는 데 그 형태는 조금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우리 회사의 경우 주 40시간을 원하는 대로 쪼개서 쓸 수 있는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선택제는 아니다. 회사업무의 특성상 집중업무시간(10시~15시)은 포함하되 아침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내에서 8시간씩 정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 우리 회사의 경우 이 외에도 다양한 시간근무제가 존재하고 근로자는 자기 상황에 맞는 시간을 선택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내가 시간선택제도 활용한 이유는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서이다. 구체적으로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한 것이다. 물론 자기계발도 직무와 연관성을 고려하여 시작한 것이며, 이것이 가까운 미래에 개인과 회사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학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나는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는 근무제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선택근무제로 나는 이른 오전 시간에 업무 계획을 세우고 메일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후 시간에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4시 퇴근 후에는 학교 수업을 수강하거나, 과제 수행 등을 하면서 자기계발에 전념할 수 있었다.

내가 선택한 근무시간을 활용하되 개인적인 투자를 하여 대학원을 진학함에 있어 회사의 내부 규정을 따라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 회사는 대학원에 다니기 위해서는 승인

또는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 주간 일반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하고, 주말 또는 야간의 특수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 주간 에 주로 수업이 이뤄지는 일반대학원의 경우에도 시간선택제, 개인휴가 등을 이용하여 수업 수강이 가능하다면 자기 의지에 따라 진학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도전?! 그 중심엔 “시간선택제”

‘회사업무’와 ‘학업’,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란 쉽지 않다. 회사에서 전일제로 보내주고 지원해주는 학위과정도 아닌데, 내가 왜 고생을 사서 할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힘들 때가 많다. 회사 업무뿐 아니라 학교에서 이뤄지는 시험을 봐야 하고, 수업을 들어야 하며 연구성과도 내야하니 말이다. 힘든 가운데 보람도 있다.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가고 뭔가를 이뤄가고 있다는 성취감을 느끼고 있으니 말이다. 사실 이 결정을 하는 데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다. 더군다나 늦각이 대학원생이 되는 것이었고 나에게 소중한 가족도 있었다. 이 도전을 시작하게 되면 분명히 역할 갈등이 있을 것이 예상된다. 가족의 이해와 지원이 필요했고 회사의 공식적인 승인 절차도 필요했다.

‘근데 왜 나는 시작하게 된 것일까? 그 동기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시간선택제’와 ‘학업을 향한 의지’였다. 진학하고자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이유는 내 업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싶어서였다. 누구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갈등을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깊은 갈등을 느낄 때면 진학을 하여 보다 깊은 공부와 연구를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 입사 초기부터 진학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 그렇기에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학업의지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당시에는 공공기관에 시간선택제가 도입되기 전이기도 했고, 업무에 적응하여 집중해야 할 때라 시작을 하지 못했다. 나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고 나의 학업에 대한 의지는 살아 있었다. 그러던 중 우리 회사가 경북혁신도시로 지방이전을 하게 되었다. 지방이전으로 인해 내가 진학하여 공부하고 싶은 학교와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

워졌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공기관에서도 시간선택제가 도입되어 학업을 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오후 4시에 마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수업이 없을 때에는 과제 수행 및 논문 작성 등에 집중할 수 있었다.

“만약 시간선택제가 도입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학업과 직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을 것이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없다면 이와 관련한 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진학을 생각할 여유가 없이 타성에 젖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모든 시나리오가 있음에도 내가 일과 학업을 병행 할 수 있었던 것에는 “시간선택제”라는 제도가 도입된 덕이 크다.

시간선택제, 긍정적 나비효과~

나는 이렇게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고 있다. 아직 학위취득을 위한 공부는 진행 중이며, 자기계발을 위한 공부가 끝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학위과정이 끝이 나는 시점까지 이 제도를 십분 활용할 것이다. 어쩌면 학위과정이 끝이 나더라도 자기계발은 계속되기에 이 제도를 활용할 것이다.

다른 이유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직원들을 듣게 된다. 어떤 이는 육아를 위해 주 20시간 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이는 간병으로 인해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어떤 이는 나처럼 학업을 위해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동기에서든 시간선택제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자기계발로 인한 성취감은 회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이고, 간병으로 인해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의 범위 안에서 가족을 돌보면서 회사를 병행할 수 있다. 그리고 육아를 위해 주 20시간 근무를 하는 사람은 저출산으로 고민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더욱 존중할 수 있을 것이다.

나비효과, 이 제도의 도입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들의 힘찬 날갯짓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제도로 인한 나비효과는 분명 밝을 것이다.

시간선택제, 이를 바라보는 시선

포털 뉴스를 통해 다수의 민간기업에서는 시간선택제 또는 유연근무제가 도입되어 활용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보았다. 주 40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자기계발을 하고 때론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도 했다.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간선택제를 통해 일과 가정 또는 일과 자기계발의 균형을 추구하는 정책이 참 반가웠다. 시간선택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고를 해주신 정부정책 관련자와 그 제도를 실제로 도입까지 수고해 주신 관련 실무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제도의 취지는 개인과 회사의 균형일 것이다. 개인의 자기계발이든, 아이의 양육이든 개인적인 삶의 영역과 회사의 이익 추구, 고객 만족 등을 추구하는 회사의 영역이 균형을 잡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는 있다. 이 시선을 바라보면 소위 “꼰대(일부 선배님)”들의 마음가짐이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아직 예전의 근무시간제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이가 있다. 어쩌면 머리로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의 규정과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소위 “꼰대”들의 방해는 이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간선택제 또는 유연근무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선진국에서 도입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를 과거의 급진적 발전을 이루어낸 일부 선배님들의 고루한 시선이 바뀌기를 희망해 본다.

IV

청년인턴

- 1 “인턴을 또 해?” “한번 더 OK!”
- 2 “체험형 인턴”에서 “채용형 인턴”으로
- 3 보통 우표에서 특별 우표로 거듭나다.
- 4 청년인턴, 정답을 알려줘!
- 5 Intern을 In-turn으로, 성장의 기회가 되다
- 6 청년인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 7 청년인턴의 실효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 8 ‘나’ 라는 선, ‘인턴’ 이라는 점.



01

“인턴을 또 해?” “한번 더 OK!”

이OO 한국임업진흥원

제게는 2016년 6개월간 홍보대행사 인턴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IT 기업의 프로모션을 담당하며 경쟁 입찰을 통해 제안서를 수주하고, 행사를 마치고 만족하는 클라이언트의 모습을 보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효율성과 이윤 창출을 위해 협력업체에 최소의 이익을 제공하고, 시간적 압박을 가하는 일이 잦아질수록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인턴 수료 후,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이 회의감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입사를 위한 고민

하지만 공공기관 입사의 벽은 생각보다 더 높았습니다. NCS사이트에 명시된 직무기술서의 고객관리, 자산관리, 사무행정 등 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비추어보니 여전히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안서 작성, 데이터 분석 등의 실무 경험으로 사무행정 능력은 갖추었지만 다른 능력들은 어디서 갖추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미 학교도 졸업한 상황에서 고객관리, 자산관리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아르바이트밖에 없었고 취업 준비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확실한 모험은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서비스 마인드가 준비되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어 마음만 조금 해졌습니다.

NCS의 족집게 과외선생님, 청년인턴제도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참가한 NCS 설명회에서 알게된 ‘청년인턴’ 제도는 제게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과도 같았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직접 근무하는 경험과 실무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다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였습니다.

“인턴을 또 해?” 무더위가 기승하던 2017년 여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청년인턴 합격 발표에 부모님께서서는 축하보다는 걱정을 표하셨습니다. 소위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 입사 경쟁률은 날이 높아지고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하루 빨리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지론이셨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현장의 선배님들의 마음가짐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고,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고 업무를 경험하는 기회인데 이보다 좋은 ‘족집게 과외’가 어디 있을까 싶었습니다.

세상 모든 고객이 나의 스승

LH 화성서남부사업단 보상부 인턴으로 보낸 2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인턴 직원들을 ‘LH를 대표하는 얼굴’이라며 격려해주시던 단장님의 가르침 아래, 봉담 2지구 토지 보상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먼 길을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은 대부분 노인 분들로 병점역 뒤편에 위치한 사업단을 찾아오시는 데 어려움을 표하셨습니다. 오시는 걸음 헤매지 않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과장님께 허락을 받은 뒤, 직접 역까지 마중을 나가기도 하고 출근길에 역부터 사업단까지 발바닥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스티커 덕분에 헤매지 않고 찾아올 수 있었다며 연신 고마워하시는 할머니님의 말씀에 작은 배려가 고객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소리소문 없이 찾아온 기회

하루는 부장님께서 10,000세대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일일이 대조하는 업무를 주시면서 업무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꼼꼼한 업무처리’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장님께서 단호히 고개를 저으시며 ‘고객의 개인정보 보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머리 위로 백열전구가 켜지는 것 같은 느낌과 함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실수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다루고,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직업윤리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장님께서 다음 달부터 보상하게 될 산지를 측량하러 가자고 말씀하시며, ‘산림정보다드림’ 시스템의 필지별 산림정보서비스 화면을 보여주셨습니다. 토양 정보, 지형정보, 적정조림수종까지 다양한 산림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지도를 통해 세상 참 좋아졌다며 호탕하게 웃으시는 과장님 덕분에 산림청 산하 준정부기관 ‘한국임업진흥원’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단풍잎이 다 지기 전에 가을맞이 등산을 하자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족들과 함께 동네 뒷산을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수리산에는 어떤 나무가 가장 많을지 궁금해져 ‘산림정보다드림’을 검색했습니다. 연관검색어로 뜬 ‘한국임업진흥원 채용’이라는 아홉 글자를 보며, 웬지 모르게 ‘너는 내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인턴 경험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

LH 보상부 인턴으로 근무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자산관리, 고객관리, 사무행정, 서비스 정신 등 직무기술서의 필요기술, 직무수행태도에 부합한 자기소개서를 써내려갔습니다. 두 달의 청년인턴의 경험덕분인지 5개월 전 처음 직무기술서를 보고 느꼈던 막막함과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져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뒤, 두 번째 인턴 생활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최종 면접을 앞두고 과장님께서서는 고객만족을 위해 보상부에서 배웠던 경험들을 떠올리라며 진심어린 조언을, 부장님께서서는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과 청렴을 다시 한 번 강조하셨습니다. 면접장에 들어설 때까지도 카톡과 문자로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신 보상부 직원분들 덕분에, 현재 한국임업진흥원 전략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 전 걱정스러운 얼굴의 부모님께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인턴을 또 해?” “한번 더 OK!”

02

“체험형 인턴”에서 “채용형 인턴”으로

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년 2개월, 대단원의 막

“축하드립니다! 감○○님은 2018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신입직원 채용형 인턴으로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지만 어안이 병병했습니다. 1년 동안 공공기관 자기소개서만 50개, 필기시험만 20회 이상 보았고 최종면접 3번 탈락이라는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저의 취업준비 생활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왜 하필 공공기관이었나

사회복지학과 재학시절 사회취약계층 관련 봉사활동을 2000시간 하면서, 취약계층을 돕는 공공기관 입사에 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선배들은 말했습니다. “지방대인 우리가 무슨 공공기관이야?”, “NCS시험 그거 되게 어렵다는데 할 수 있겠어?”, “자격증 10개 정도 돼야 서류 붙는다며”라는 말들이 가슴에 내리 꽂았습니다.

그 당시 저의 스펙은 한국사, 한국어 자격증, 토익이 전부였으니...

그러나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 할 수 없다는 말처럼, 지방대이지만 꿈조차 못 가지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전형은 지방거점 대학을 졸업한 졸업자에게는 ‘지역인재전형’이 있었고, 공공기관의 프로세스를 미리 접해 볼 수 있는 ‘청년 인턴’ 제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는 더 이상 자격증으로 줄 세우기 채용과정이 아닌 직무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의 NCS서류 전형은 자격증이 많다고 서류전형에 합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경험과 활동, 그리고 교육을 이수했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관련 자격증인 한국사와 한국어 그리고 기준요건이 되는 토익점수만 취득하고 더 이상 자격증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보물과도 같은 2000시간의 직무 관련 봉사활동 경험, 사회복지 및 행정 교육사항 50여개가 10개의 자격증보다 나았으니 말이죠. 따라서 공공기관 입사 전형은 저에게 절호의 기회이자 찬스였습니다.

독서실 지킴이에서 ‘탁월인턴’에 선발되다

“오늘은 시원한 수박 드시고 파이팅!” 무더운 여름, 독서실 사장님의 메모였습니다. 저는 약 6개월 동안 독서실에서 매일 9시간 동안 NCS와 전공 공부를 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인터넷 강의 학습, 스터디원들과의 봉투 모의고사 풀이, 뽁뽁이 채워져 가는 오답노트... 모든 것들이 지칠 때쯤 한국토지주택공사 체험형 인턴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그래, 더 이상 책상에서 공부만 할게 아냐. 현장 업무를 익혀보자’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제가 배웠던 주거복지 관련 봉사활동 내용과 교육사항으로 채워져 갔고 가점 사항엔 한국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면 충분 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체험형 인턴에 선발되어 3개월간의 인턴 생활이 시작 되었습니다. 업무는 기본적으로 주거복지 업무 지원인 부금·갱신·해약 업무, 매입·임대 및 공급 관련 고객 상담, 열쇠 불출 등이었습니다.

저는 인턴 기간 동안 3가지를 지킬 것을 제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직원에게 인사 잘하기

두 번째는 나에게 오는 고객마다 만족도 높은 상담 제공하기

세 번째는 성실하기

이렇게 3가지 목표를 정한 까닭은 인사만큼은 기본 예의라 생각했기에 저희 부서 직원 뿐만 아닌 다른 부서 직원, 경비 아저씨, 구내식당 아주머니들 등 항상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오는 고객마다 정확하고 만족도 높은 상담을 드려 먼 곳에서 찾아오시는 고객이 헛걸음 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끝으로 공공기관은 공문서, 관계 부처 연계 등 다양한 문서와 사람이 공존하여 기간 내 약속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첩에 업무를 꼼꼼하게 정리하며 성실한 자세를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국민의 주거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며 인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사기·파쇄기 사용법, 공공기관의 프로세스, 민원의 돌발사항 등 독서실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부서 내 직원들의 친절함 가르침에 금방 익숙해져갔습니다. 3개월만 있다가 갈 사람이 아닌 정말 부서의 한 일원으로서 꼼꼼하게 업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턴 3개월의 생활 막바지쯤, 체험형 인턴 최종 PPT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업무 개선 점과 인턴 생활의 느낀점을 발표하는 것이었는데 3개월 동안 만났던 많은 고객, 500장의 계약서 관리, 무엇보다 소중 했던 부서 직원들을 떠올리며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청년인턴 상위 10%인 탁월인턴에 선발되어 부서 직원 분들께서 엄청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 씨는 고객의 마음을 가장 잘 읽는 인턴이었어.”, “어딜가나 항상 이쁨 받으며, 취업도 잘 될거야.”라는 부장님의 말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게 부서 전체 직원들에게 감사편지와 직접 만든 수제 양초를 건내며 행복했던 3개월의 막이 내렸습니다.

서류 승률 100% 보다 값진 경험

저의 취직준비 생활은 청년인턴 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3개월의 인턴 생활을 마치고 다시 취직준비생으로 돌아 왔지만 더 이상 겁나지도,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는 공공기관의 특성과 프로세스 등을 미리 익혔기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인턴을 하기 전,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는 인터넷 카페의 카더라 통신으로 오류를 접하여 서류 통과율이 40%였습니다. 하지만, 청년인턴을 하고 난 뒤 공공기관의 실무를 통한 이해와 관련 직무의 경험에 인턴경력을 덧붙여 직무에 맞는 자기소개서로 다시 녹아내려 갔습니다.

그 결과 서류는 백전백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 100%의 행복보다 더 값진 것은 바로 돈 주고 사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조직문화, 관계부처 연계 방법, 다양한 사연을 가진 고객과의 응대, 부서 직원들과의 추억 등...

지금 이 수기를 읽고 있는 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꼭 청년인턴을 해보라고 말יי죠.

꿈이 아닌 실현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취직준비 생활 1년 2개월을 끝으로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최종 입사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기관에 입사하고 싶은 꿈을 이룬 셈이죠. 얼마 전 4개월간의 정규직 전환 평가 기간인 인턴을 거쳐 주임이 되었는데 더 이상 꿈이 아닌 실현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할 일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온갖 우울한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체험형 인턴을 바탕으로 채용형 인턴에 최종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신입직원으로서 아는 것보다는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하루하루 저에게 주어진 업무, 민원 응대, 지침 숙지 등 보람찬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2022년까지 노인 일자리 80만개를 창출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노인일자리 증추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 전 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출산·고령화의 사회 속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속에서 저는 국민이자 직원으로 사회취약계층의 노인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수기를 읽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올리자면 분명 힘들고 지칠 시기가 고비로 올 겁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믿습니다. 자신의 ‘업’이 자신의 ‘득’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군분투하는 서류탈락, 필기탈락, 최종 pt면접 탈락 경험 등이 득이 되기 위한 업이 될 것입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분명 더 좋은 곳을 가기 위한 업이 될 겁니다.

이 수기를 읽는 모든 분들의 득을 응원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우표에서 특별 우표로 거듭나다.

권○○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보통 우표

“안녕하세요, 한국우편사업진흥원에 지원하게 된 우표 같은 지원자입니다.” 청년인턴 면접 1분 자기소개에서 했던 첫마디입니다. 저는 공공기관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몇몇 공공기관의 필기전형에 통과하여 면접을 치렀으나 역량이 부족한 탓인지 번번이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면접을 회상하자면 면접위원은 모두 무서워 보였으며, 떨림의 진도는 머릿속에 해일을 일으켜 새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졸업 후 막연하게 취업할 수 있다고 자만하였지만, 막상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보니 저 자신이 한없이 부족해 보였고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족한 역량을 기르고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청년인턴으로 지원하게 되었으며 서류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실패만 가득하던 취업 준비 기간에 처음으로 겪어 보는 성공이었습니다.

인턴으로서 느낀 사명감과 소속감

입사 첫날 저는 공부할 책 한 권을 가방에 넣고 출근하였습니다. 타 공공기관 인턴으로 있는 지인들은 인턴에게 주어지는 업무는 거의 없어서 자기 계발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조언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 출근에 저는 공부는커녕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거하게 환영식을 치렀습니다. 4차 채용 인원내 대한 문서 정리와 동시에 5차 채용

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면접 준비, 지원자 안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입사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어가지만, 채용 관련 업무, 교육 훈련 관련 업무, 기록물 관리, 인사기록카드 관리 등 다양한 사무 행정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청년인턴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면서 책임감과 더불어 인사 직무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를 담당하던 대리님께서 저에게 취업 준비생의 시각에서 진흥원의 채용 방식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해달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보조업무에 한정된 저에게 살아있는 업무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공공기관을 지원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채용 방식에 대해 분석하고 진흥원의 채용 방식과 비교하여 잘하고 있는 점, 수정했으면 하는 사항 등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우수하게 작성되었다면 팀장님 결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검토 후 실제 진흥원 채용 과정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현재 사명감을 가지고 틈틈이 제안서를 작성하는 중입니다.

청년인턴에게도 선택적 복지포인트와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며 명함 및 명패를 제작해주는 진흥원의 배려는 저도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의 직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던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소속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고 취업에 대한 조급함을 심어주었는데 진흥원에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존중과 인정에 감동하다

저는 청년인턴으로서 존중과 인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모든 조직원이 저의 의사를 존중해주었으며, 일방적인 업무 지시가 아니라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였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지 업무 배경에 대해 분명히 설명해주었으며, 모르는 점이 있으면 바로 질문하여 업무에 구제성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OO 주임님~” 하면서 말씀해주는 모습에 인간적인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배려는 제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조직에 도움이 되는 인턴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별거 아닐 수 있는 저의 업무에 피드백해 주시며, 꼼꼼한 성격이라서 인사업무가 잘 맞을 것 같다는 칭찬이 제가 공공기관 경영지원 직무를 수행하고 싶다는 목표를 더욱 뚜렷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원장님과 인재경영팀이 식사할 자리가 있었는데 팀원들이 원장님께 저의 칭찬을 해주었으며, 원장님께서도 저에게 농담도 해주시고 개인적 질문을 해주시는 모습에 저는 감동하게 되었으며 청년인턴이 끝난 후 정규직 직원으로 입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특별 목표로 거듭나기까지

저는 현재 재직 중이므로 취업 성공사례에 관하여 기술할 수는 없지만, 청년인턴의 경험이 취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는 인재경영팀에서 채용, 교육 훈련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채용 과정에 대해 생생히 알 수 있었으며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공부했던 경영, 행정, 인사 관련 지식을 살아있는 역량으로 만들어주었으며, 제가 부족한 점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 훈련을 관리하면서 입사 이후에도 꾸준한 자기 계발을 하는 직원들의 모습에 자극되어 저도 퇴근 후에 열심히 공부하였으며 청년인턴 이후의 저의 삶에는 성실과 보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면접에 트라우마가 생겼던 저에게 인턴의 경험은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면접위원들은 인자한 팀장님, 외부 심사위원이었으며 면접위원을 적군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같이 대학을 졸업하여 지식은 습득하였지만 아무런 사회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인턴 경험은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조금 굽어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성공적으로 취업하리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기회가 된다면 취업에 성공하여 블라인드 채용 합격 수기를 작성해보고 싶습니다.

애로사항 및 정책적 제언

제가 하고 싶은 정책적 제언은 소모성 채용이 아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채용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거나 주변 사례를 보면 인턴을 망부석처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인턴을 뽑아놓고 방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업무를 분담할 수 있고 청년인턴으로서도 업무를 배울 수 있는 Win-Win 관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업무가 없음에도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행위, 경영 평가에 맞춰 연말에 우후죽순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청년인턴 채용 공고, 반일제(4시간) 인턴 모집은 공공기관의 무책임한 채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평가를 위한 채용, 소모성 채용은 인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며, 공공기관은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억지로 채용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따라서 저는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게 인력이 필요할 때만 신축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인턴에게 공식적인 멘토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멘토 선정을 통해 부서 관련 업무를 익히고 대인관계 능력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의식까지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인턴 경험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공기관은 인턴 수료자를 위한 제한 경쟁 채용이 존재하며, 어떤 기관은 인턴 수료에 대한 가점이 있는 한편, 아무런 가점이 없는 기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인턴만을 위한 차별적 제도는 인턴이 불필요한 지원자에게도 인턴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턴은 기업의 분위기를 느끼고, 업무를 배우기 위한 것이지 특혜를 주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는 진정한 블라인드의 취지에 맞게 역량을 통한 선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인턴, 정답을 알려줘!

천○○ 한국주택금융공사

청년인턴에 지원하기까지

대학에 입학해 글로벌경영학을 전공하면서 금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관련 과목을 들으면서 금융 분야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금융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전문적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시적인 일이라는 생각에 미래 진로를 금융 분야로 생각하고 공부를 하였다.

3학년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금융 공기업을 목표로 준비를 시작하면서 취업에 대한 정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스펙들을 하나씩 준비해 갔다. 토익, 한국사 등과 같은 자격증부터 학교 내 경영학회, 한국은행 금요강좌 등과 같은 활동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틈틈이 준비를 하였다.

또, 주말, 방학 시간을 활용하여 금융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하였다. 3학년 때는 CFA LEVEL 1을, 4학년이 돼서는 FRM 시험에 응시하고 자격을 취득하였다. 이처럼 대학생활 후반부의 대부분을 자격증을 준비하는데 쓰면서 스펙을 쌓아나갔다.

하지만 늘어가는 스펙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대한 불안은 줄어들지 않고, 막연함이 오히려 커져만 갔다. 하나의 스펙을 쌓고 나면 ‘과연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었을까, 이 시간에 다른 것을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함께 제대로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불안감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계속되는 막막함에 금융 공기업에 취직한 선배들을 만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학교

에서 열리는 채용설명회에 참석해 실제 취업 준비 경험 사례와 채용과정을 들어보기도 하였다.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는 요즘, 자격증과 같은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통해 스펙을 초월하여 실질적인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경험들과 회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입사 후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여러 조언을 듣고 준비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서, 자격증을 통한 스펙 쌓기보다는 실제 직무 수행 경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청년인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년인턴은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에서 인턴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실무 경험을 해본다면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2016년 5월, NCS 과정을 통해 채용이 이루어졌던 '한국예탁결제원'의 청년인턴에 지원하였다. 난생 처음 자기소개서를 써서 제출해 서류전형을 통과하였고, NCS 직무능력평가시험과 실무진 면접 등의 전형과정을 거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바로 청년인턴을 시작하게 되었다.

청년인턴을 통해 얻은 것

2016년 7월부터 한국예탁결제원 글로벌서비스부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를 하였다. 글로벌서비스부 내 여러 팀 중에서도 내국인이 해외에 투자한 증권에서 발생하는 옵션, 배당과 같은 국제권리행사 관련 업무를 하는 국제권리관리팀에 배치가 되었다.

국제권리관리팀에서 근무하는 것을 통해, 책으로는 배울 수 없었던 해외증권 투자의 금융실무를 경험할 수 있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투자의 과정 이면에 증권사, 은행, 그리고 해외 금융기관들이 얽혀 있고, 큰 흐름의 한 부분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 여러 주체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무자들은 전화와 전산 시스템을 통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타 기관의 실무진과 소통하며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처럼 큰 업무의 흐름 속에서 청년인턴으로 국제권리행사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세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해외 자료를 번역하는 업무를 하였다. 국제예탁결제기구와 해외의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 각 나라의 투자 정보와 세율 관련 자료를 한국과 해외 각국이 맺은 조세협약에 맞춰 세금 정보를 정리하는 일을 맡아 했었다. 또, 국채와 관련된 해외 저널 자료를 번역하여 향후 세제 개편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기도 하였다.

물론 부서에 배치 받아 근무를 시작했을 때, 업무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어려운 업무와 생소한 용어들이 수두룩한 업무 매뉴얼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팀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매뉴얼을 반복해서 읽고 팀원 분들에게 업무를 배워가면서, 팀이 하는 업무, 나아가 해외증권 투자 업무 프로세스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학교 전공 수업에서 공부했던 개념들과 용어들은 실제 업무를 이해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5개월간의 청년인턴 경험을 통해 자격증이나 활동보라도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팀에 속해 일을 한 경험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단순히 지원자의 입장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나열하기보다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나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게 해주었다.

다음으로 청년인턴을 하면서 키울 수 있었던 직무 수행 능력과 실무 경험은 면접 전형을 통과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되었다. 청년인턴을 하면서 했었던 업무와 이를 통해 배운 것, 그리고 이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것 등에 대해서 고민하였고, 면접장에서는 나의 이러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말할 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리고 면접관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것도 다른 스펙이 아니라 5개월간의 청년인턴 경험이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회사 내 조직생활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다. 고객 전화가 왔을 때 응대하고 내방 고객을 접대하는 것과 팀원과 함께 일하는 방법, 기본적인 직장 에티켓과 같은 것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배울 수 있었다. 실제 업무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청년인턴을 통해 체득한 것은 지금 회사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청년인턴이 청년에게 더욱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인턴은 직장 생활을 해보지 못한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에게 매우 매력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청년인턴의 경험자로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턴에게 제한되어질 수밖에 없는 업무 기회이다. 단기간의 근무 후 떠나야 하는 인턴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청년인턴은 기본적인 사무, 자료 조사, 번역과 같은 한정된 일만을 할 수밖에 없다.

청년인턴들의 참신한 시각과 창의적인 발상을 활용하고 펼칠 수 있는 방향으로 청년인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프로젝트나 신상품 개발에 청년인턴을 참여시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미취업자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한다는 본래의 취지와 더불어 실무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청년인턴은 학생들과 취업준비생에게 더욱 효과적이고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은 불안함과 막연함 속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청년인턴이 이러한 불안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무조건적인 해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청년인턴은 취업준비생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고, 정답을 한번은 경험하게 해주는 모의고사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취업준비생이 청년인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이 제도가 청년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Intern을 In-turn으로, 성장의 기회가 되다

백〇〇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청년인턴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꼬박 1년이 되던 2018년 8월 1일, 저는 공공기관 예산경영 부서의 일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제가 전공한 분야는 업무와 다소 연관성이 적은 ‘해양생물’입니다. 역설적이게도, 4년간 책과 실험을 통해 전공지식을 배운 대학시절보다 5개월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청년인턴으로서 근무했던 시간이 저의 취업목표를 뚜렷하게 정해주었습니다.

‘스펙’보다 ‘지원직무’에 집중하기

졸업 후 전공지식을 살려 취업목표를 정할지 갈등하고 있던 제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의 청년인턴 채용공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전공 분야와 밀접한 공공기관에서 취업 가능성을 열 수 있는 단비 같은 기회였기에, 저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담아 청년인턴 채용에 지원했습니다. 지원자 대부분이 갖추고 있을 어학 사항이나 자격증과 같은 ‘기본 스펙’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채용공고에 기술된 ‘직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FIRA의 핵심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기관을 운영하는지 파악하였고,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경험들을 나열해보았습니다. 또 관련 논문이나 업체와의 계약 현황 같은 세부적인 사항, 최근 동향에 대해 면밀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턴이 되어 근무하면서 상사와 불화가 발생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나갈지, 저의 실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 진중하게 생각해보기도 하면서 조직 생활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진솔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꼼꼼히 준비한 노력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돋보였는

지, 면접관님이 ‘면접 질문을 어디서 보고 준비해온 것 같다’는 감탄 섞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청년인턴으로 굳혀진 취업목표

처음에는 전공 분야로 취업하는 시작단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와 함께 인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FIRA의 주요 사업부서로서 전공과 밀접한 여러사업들을 많이 접했지만, 행정업무를 할 때 더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부서의 행정지원인력으로 회의 진행을 보조하고,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해 여러 비용에 대한 행정 처리를 하며, 부서의 대·내외적인 문서를 작성하면서 행정업무에 대한 저의 숨겨진 역량을 발견하였습니다. 결재문서가 늘어날수록 전공 실험을 할 때 느낄 수 없었던 묘한 뿌듯함이 마음을 채웠고, 비로소 저의 막연한 취업목표를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바로 ‘공공기관 운영의 원동력이 되는 행정인력이 되자’는 목표입니다.

부서의 든든한 조력자, 청년인턴

청년인턴 근무 첫날, 그룹웨어에 접속할 수 있는 사원번호와 아이디를 받았을 때 열정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들뜨는 듯합니다.

처음에는 외부에서 걸려오는 단순 문의 전화를 받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부재중인 분의 전화를 당겨 받는 일이 그렇게 긴장되는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후 차근차근 업무를 배워나가 주로 부서 분들의 경비에 대한 지출결의 업무와 간단한 결재문서 작성 등의 행정지원 업무를 맡아 다소 출장이 잦은 부서 분들을 든든히 지원하였습니다. 또 계약업체의 문서 관리를 비롯해 작게는 부서 사이에, 크게는 외부기관 사이에 주고받는 공문 수발신 업무와 내부행사 및 근태 사항을 파악하는 일정 관리 업무를 도맡았습니다.

행정업무 외에도, 인턴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부서 분들 덕분에 FIRA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의 현장에 출장도 다녀보고, 회의록 작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진행하는 회의에도 참석해보는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제도, 최대한 활용하고 응용하자

인턴으로 근무하며 꿈꾸게 된 ‘행정인력’에 비해 저의 직무능력을 가시화해줄 만한 자격 사항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고민을 들은 인턴 동료가 고용노동부 주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설명해주며 학원에 다녀 보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먼 곳에서 출퇴근하는 인턴 동료는 온라인 강의를, 근처에서 자취하던 저는 학원을 등록해 퇴근 후 전산회계를 배우며 직무능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동료와 공유하며 바로 인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었기에 더욱 탄력을 받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FIRA에서 마련해준 청년인턴 교육 과정도 직무능력을 향상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올바른 공문서 작성법, 구성원과의 효과적 의사소통법과 같은 직무에 필수적인 강의부터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한 어학, 직업윤리 등의 인터넷 강의, 그리고 다양한 공공기관의 채용 경향과 면접법을 알려주는 채용설명회까지 마련되었습니다. 청년인턴 근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청년인턴 과정 수료 후 다양한 채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넓은 폭의 교육을 제공해주어 정말 든든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도 공공기관의 NCS기반 채용에 맞추어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강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에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다양한 연결고리를 인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바랍니다.

당신이 체험한 인턴을 충분히 어필하라

제가 근무하고 있는 예산경영 분야에 이력서를 준비할 때, 이공계열을 전공한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바로 청년인턴 경험이었습니다. 행정학이나 경영학처럼 관련 학과를 전공하지 않았고, 이와 연관된 행정관리사나 경영관리사 같은 자격증 역시 없었던 저였지만 청년인턴 경험이 있었기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직무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블라인드 채용이라면 저의 청년인턴 경험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청년인턴으로서 담당했던 다양한 행정 업무들을 직무기술서에 기술된 담당 업무와 연결하자 자기소개서에 저의 업무역량을 녹여내기 수월했습니다. 또, 퇴근 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산회계 학원에 다닌 내용을 기술하며 자기 계발을 탄탄히 해왔던 점을 어필했습니다. 서류전형에서 통과했다는 가슴 떨린 연락을 받고, 면접전형을 준비할 때에도 청년인턴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답변을 작성했습니다.

청년인턴 근무 마지막 날인 2017년 12월 31일, FIRA 건물 곳곳을 돌며 그동안의 감사 인사를 드렸을 때 쏟아지던 박수를 아마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청년인턴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한 저에게 모두 한마음으로 격려를 담아 보내준 박수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인턴의 끝을 축하해주기보다, 이제 시작될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격려해주며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신 FIRA 분들의 응원에 힘을 내어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저의 짧은 수기가 청년인턴을 준비하는 많은 분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로 첫걸음을 내딛는 많은 분이 청년인턴 과정을 통해 인턴 시절 제가 받았던 배려와 격려, 가슴 따뜻한 응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년인턴을 준비하는 여러분, 그리고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는 여러분들의 밝은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청년인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나OO 한국행정연구원

2018년 11월 서른즈음에

2018년 11월 저는 초조했습니다. 신입 공채를 쓰기에는 다소 늦은 서른 살이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 50여 개의 지원서를 썼지만 그 중 붙는 곳이 한 손에 꼽을 만큼 적었습니다.

경영·경제가 아닌 정치외교학과 단일 전공이지만 학부생 때 현장실습을 통해 경기도 고양시의회에서 2개월간 인턴 생활을 했고,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했던 터라 실제 직무 경험도 있는 중고 신입이었지만 지원 결과가 심각했습니다.

계속되는 서류 탈락에 움츠러들고 스펙을 더 쌓아야 하는지 자기소개서를 첨삭 받아야 하는지 헷갈렸습니다. 가장 막막하고 답답한 것은 어디가 부족해서 떨어졌는지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러던 차에 한국행정연구원 청년인턴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만약 청년인턴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았을 것입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고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준 한국행정연구원의 청년인턴제도를 소개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따뜻한 면접

10월 초 국회의원 보좌관 채용공고를 살펴보다가 '정책연구원'을 검색했고 한국행정연구원 청년인턴 모집공고를 봤습니다. 당장 돌아오는 관리비와 학자금 대출이 부담인 처지였기 때문에 공고를 보자마자 청년인턴으로 시간을 벌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10월 말 서류합격 전화를 받고 도착한 면접장에서는 스스로 콤플렉스라고 생각한 나이나 토의 점수 등 스펙에 대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보시며 경험을 묻고 비전과 실무 위주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압박면접 같은 거 아니라고 웃으시며, 얼어있는 제게 긴장 풀고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해주셨습니다.

입사하자마자 시작된 11월 전체회의

면접을 아주 못 보지는 않았는지 합격 전화를 받았습시다. 이제까지 늘 불합격이라는 글자만 보다가 합격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최종합격자 공고를 홈페이지에서 한참이나 바라봤습시다.

혹시나 해서 “인턴 기간 중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되면 연차 쓸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니 당연히 된다고, 특별휴가가 유급으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덧붙여 그런 기회가 선생님께 많았으면 좋겠다고 인재경영팀에서 확인해주어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마침, 첫 출근 날이 원장님 이하 모든 박사님들과 선생님들이 모이는 11월 전체회의 날이었습니다. 잔뜩 긴장해 있는데 경영지원 실장님께서 “오늘 우리 연구원에 새 식구 두 분이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라고 하셔서 전 직원 분들 앞에서 인사도 드리고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받아서 얼떨떨했습니다.

천사 같은 국정관리연구본부 본부장님

저는 한국행정연구원 내의 행정 정책 연구를 총괄하고 연구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국정관리연구본부 본부장실에 배치되었습니다.

본부장이라는 직책에 압도되어 얼마나 일이 많을까 싶었는데 본부장님은 전혀 권위적이지 않게 저를 편하게 배려해주셨습니다.

처음 지시하신 것이 포용성장, 포용국가에 대한 선행연구 조사였습니다. 저는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만 뉴스나 신문에서 들어 어렵풋하게 알고 있었지 포용성장과 포용국가는 생소했습니다.

그러자 본부장님은 포용성장, 포용국가에 대하여 배경과 개념, 사례를 알기 쉽게 요약 해주셨고 제가 이해하고 나서 선행연구 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갈등관리 사례 보고에 대한 복사를 시키시더라도 연구 목적과 이유를 풀어서 설명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어떤 국정과제이고 어디에 필요한 자료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행정연구원의 일원이라는 소속감과 국책연구에 참여한다는 책임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더 나은 청년인턴 제도를 위한 청년제언

저는 지금 적성에 꼭 맞는 만족스러운 인턴 생활을 하고 있지만 더 나은 청년인턴 제도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체험형 인턴에게 서류전형 가산점을 부여하면 좋겠습니다. 인턴제도의 취지는 청년들이 취업에 앞서 자신의 전공과 적성을 시험해보고 실무 역량을 학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전공과 무관한 단순 업무에 동원되고 그마저도 일이 없어 방치된 청년인턴이 많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체험형 청년인턴은 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는 단순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무를 맡기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재교육할 유인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체험형 청년인턴에게 원 소속기관에 한하여 정부가 유의미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가산점이 채용과정에서 두드러진 경쟁력을 보인다면 각 공공기관들이 먼저 나서서 형식적 인턴제도 대신 전공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예비 인적 자원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체험형과 채용·전환형을 확실하게 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인턴 제도는 3개월 미만으로 계약하는 체험형과 6개월 이상 계약하여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하는 채용·전환형이 있습니다.

문제는 체험형도 아니고 채용·전환형도 아닌 3개월~6개월 사이의 인턴입니다. 이 기간은 체험형 경력관리도 아니고 채용을 예비하는 것도 아니라 단순 업무로 시간만 때우

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청년인턴 제도를 체험형과 채용·전환형으로 확실하게 구분해 모집 인원을 더 늘리고 채용 기간과 역할이 어중간해 비판받는 3개월~6개월 사이의 청년인턴을 줄여야 합니다.

몇십 대 일 경쟁률과 몇 단계의 채용과정. 청년인턴 일자리마저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청년인턴 일자리마저 떨어져서 좌절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는 청년들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낙인효과(scarring effect)는 청년기에 실업을 경험한 사람이 실업기간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임금에서 손실을 입게 되는 현상입니다. 청년실업은 단순히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적자본의 손실과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일으켜 국가경제 침체를 가져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현재는 공공부문 확장으로 청년 실업을 극복해야 합니다. 체험형 청년인턴의 확대가 그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치고 힘든 청년들이 청년인턴 일자리마저 떨어져서 좌절하지 않도록 체험형 청년인턴 일자리를 더 늘려서 필요한 모두가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터닝 포인트,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다

저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한 ‘홍보기획 및 실행전략’ 직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을 통해 제가 하고 싶은 분야와 직무를 찾고 역량을 쌓고 있습니다. 홍보 직무에 집중해서 원서를 쓰기 시작했고 중견기업 최종 면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 좋게도 청년인턴이 되어 천사 같은 본부장님과 열정적인 인재경영팀의 관리와 지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단지 청년인턴이기 때문입니다.

취업이 막막할 때 청년인턴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청년인턴이 제게 그랬듯, 당신에게도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청년인턴의 실효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박○○ 한국조폐공사

들어가며

청년인턴 일자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청년 취업 준비생들이 기업의 프로세스와 직무를 몸소 경험하고 사회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청년인턴의 기회는 공공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업무 상황을 체험함으로써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후에 정식으로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이를 적용하여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경험보다도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청년인턴 제도를 잘 활용함으로써 그 경험을 토대로 지원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관해 분석하는 시야를 넓히고 실질적으로 직무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하여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인턴 과정에서 확보했던 경험을 통하여 취업 준비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전문성을 증진하고 직무 성취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지금 소중한 기회를 얻어 한국조폐공사의 ID본부에서 첫 인턴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미숙한 점이 많지만 배워나간다는 의미를 체감할 수 있기에 매우 설렙니다.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한국조폐공사 ID본부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제가 배치 받은 여권제조부 공정과의 주 업무에 관해서 알아갈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체험형 청년인턴 제도는 미리 기업과 직무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제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활용하여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더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인턴 제도를 위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실효적 청년인턴 제도를 위한 정책 제언

첫째, 가점 제도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현재 주로 나오는 인턴 공고는 체험형 청년인턴 공고입니다. 채용형 인턴 채용 수를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체험형 인턴을 시행하여 실용적인 경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매우 긍정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훗날 기업에 신입으로 지원을 할 때 어떠한 이점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업과 인턴 입장에서 모두 청년인턴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고용하는 기업 입장에서 고려해볼 때 채용형 인턴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는 업무를 교육하고, 중요한 직무를 맡기기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청년인턴 제도의 진정한 취지를 실현하기에 제한이 있으며, 기업의 직무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경험하는 것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청년인턴이 진정으로 조직의 일원으로서 인지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신입 지원 시 가점을 주는 정책을 의무화함으로써 청년인턴이 실무적인 일을 경험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인턴의 입장에서 고려하면 좀 더 소속기관의 일원으로서 책임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인턴을 경험하면서 표면적으로 단순히 한 줄 더 경력을 채우기 위해 적당히 인턴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임무를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수행하여 기업과 직무에 관해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년인턴 매뉴얼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청년인턴 인력을 활용하고 최대한 실무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인턴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인턴이라는 인적자원을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근본적으로 청년들의 취업 준비에 유익할 수 있도록 청년인턴 매뉴얼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업 조직과 직무에 관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시스템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방안은 청년인턴 제도를 실효적으로 정착시키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셋째,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청년인턴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청년인턴은 체험형이라는 말에 알맞게 ‘경험’을 하는 의미에 집중하여 제도를 운영한다면 실용적인 결과를 이룰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인턴 매뉴얼 확립의 일환으로 청년인턴의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시하고 있는 체험형 인턴 기간은 1개월 또는 2개월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파악하고, 직무를 심도 있게 이해하여 실제 직무 역량을 함양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인턴 기간을 최소 4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면 청년인턴이 실질적으로 업무 능력을 배양하여 실제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순환 제도를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청년인턴 기간에 하나의 직무만 경험하기보다는 주어진 기간을 활용하여 최대한으로 다양한 직무에 따른 업무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청년인턴 평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인턴평가제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통해 청년인턴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기준에 맞춰 실질적 업무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서류평가와 면접단계 과정에서 핵심가치 부합여부, 인성 및 태도 등 분명한 기준에 맞춰 평가하는 것처럼, 청년인턴 과정에서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정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인재에 알맞은 역량을 갖추도록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척도를 통해 청년인턴 평가 제도를 적용한다면 공공기관에 필요한 맞춤형 역량을 확보하여 최적화된 인재로 거듭나는 데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공공기관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년인턴 기간을 마친 후, 청년인턴이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공공기관의 청년인턴 채용 제도와 조직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진정한 블라인드 채용 제도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에게 청년인턴의 기회는 공공기관과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기회 하나하나가 매우 절실합니다. 그래서 청년인턴을 지원할 수 있는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취업 준비생이 자격증 수를 계량화하는 평가에서 벗어나 청년인턴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체험형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을 적용해야 합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부담감을 경감하고 탈스펙화를 실현하여 지원자가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자기 소개서입니다. 일정한 자격증과 자기 소개서 중심으로 지원자를 평가하는 것이 지원자 자체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지금 한국조폐공사 ID본부의 인턴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소개서 100%와 면접 채용 제도를 활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를 배제하고 온전히 제 자신의 역량을 보여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청년인턴 채용에서 자격증 개수와 점수를 중심으로 채용하는 것은 또 다른 스펙문화의 고착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자의 역량 그 자체에 집중하여 진정한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실현하는 것이 공공기관 취업에서 긍정적인 블라인드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며

청년인턴 제도가 불안정한 취업 시장을 개선하고 청년층의 고용률을 높여 실질적으로 청년층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과 공공기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청년인턴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큰 틀을 마련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확실한 청년인턴 채용 체계와 진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입하여 협력한다면, 실효적인 청년인턴 제도를 정착하고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준비 과정에서 어떠한 역량을 길러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 뚜렷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계적인 청년인턴 제도를 통하여 취업 준비생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공공기관에 적합한 구체적인 역량을 찾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인턴 제도는 취업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소중한 열쇠입니다. 진정으로 청년들을 위한 청년인턴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완화하고 경직된 취업 시장의 선순환을 이끌어 모든 청년들이 웃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라는 선, '인턴' 이라는 점.

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시작 점.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 '고용'과 관련한 일에 흥미를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막연하게 공기업이고, 고용과 관련된 일자리를 갖고 싶다는 생각에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청년인턴 공고에 응시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합격하여 6월 7일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발 점.

'난 컴퓨터도 못하고, 자격증도 없고, 지방대이고, 알바 외에 일은 아예 처음인데 어떡 하지? 적응은 잘 할 수 있을까?' 끊임없는 고민과 걱정거리를 안고 첫 출근을 했습니다. 간단한 직무교육 후에 배치된 부서로 첫인사를 하러 갈 때까지 부담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평생직업교육연구본부의 특성화고 지원센터에서의 첫날. 비록, 임시지만 '내 자리' 까지 얻었는데 멀뚱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기... 선생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쪽 사업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요. 혹시 숙지할 수 있는 매뉴얼북 같은게 있을까요?" 주뻗주뻗 아무 선생님이나 붙잡고 여쭙던 말이 얼마나 떨리고, 컸던지 사무실의 모든 선생님들이 일어서서 매뉴얼이며, 우수사례 수기집이며 챙겨주셨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라, 갖고 싶으면 그 책들 가져가도 좋다. 친절하게 배려해주시는 모습에 이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턴이 되자. 첫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실업계 고등학교로만 알았지, 특성화고라고 또 언제 바뀌었는 지도 몰랐었지만, 사업에 관련된 매뉴얼을 보면서 문외한인 저조차 금방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잘 꾸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부러 사업별로 질문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 뵈게 된 연구원 선생님들과 어떻게든 대화의 물꼬를 잡고 싶어서였습니다. 다소, 불순한 목적으로 또는 호기심과 탐구심으로 사업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공부는 담당 멘토 박사님과 센터장님의 앞에서 긍정적으로 발휘되었습니다. “특성화고지원센터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요?” “제가 공부한게 맞다면, 재구조화 사업, 매력적인 직업학교,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등이 있습니다. 질적, 양적으로 특성화고, 학생, 교원, 지역사회를 지원하여 학력주의를 타파하고, 유망고졸인력을 양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후 박사님께 열심히 잘할 것 같다는 독려도 받게 되었고, 새로운 연구조원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더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점.

밝게 웃기, 인사 잘하기 등 기본적인 예의를 가장 잘 지키려 노력한 덕에 사무실의 분위기에는 잘 녹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사와 달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이라 어색함에서 오는 실수들은 경험으로 두 번 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새로운 업무를 받을수록 양이 늘어남에 따라 실수 또한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문서작성이 아닌, 전화업무와 회의 참여였습니다. 전화업무의 상대와 요청 내용이 고정적이지 않았고, 학교 선생님에서부터 기업 ceo분들, 장학사님, 박사님 등 말 실수의 여지 등이 저를 민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약 한 달간 매력적인 직업학교(매직학교) 우수사례 모집 독려 전화를 선생님들께 한 적이 있습니다. 매직학교란 학교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스스로 구상한 ‘매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학교, 흥미롭게 경험하는 실전문업, 머물고 싶은 행복공간, 이웃과 함께하는 학교, 인성기초 학력 향상지원, 성공적인 취업 지원 등 총 6가지 중 선택 조합하여 자체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직업계고등학교의 근본적 혁신 및 체제개편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전 특성화고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 예산 지원을 받았던 선정

학교를 대상으로 우수사례집이 발간될 예정이었습니다. 우수사례를 확산 보급하여 사업의 안정화와 질을 향상함으로써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집 받는 시기가 시험기간이라 선생님들마다 굉장히 바쁜 시기였고, 그런 와중에 학교 수업이며, 매직학교 프로그램이며 정신 없이 보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필수로 받아야 한다며 다짜고짜 전화를 하는 순간 일어날 일이 눈 앞에 생생히 그려졌습니다. 만약 내가 선생님들이었다면, 어떻게 받아야 이해를 할까? 생각했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는 LMS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우수사례집을 만드는 이유, 목적, 바쁨에도 불구하고 항상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들의 감사와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해 더 나은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회신 날짜를 명시하고, 문의사항에 대해 제 연락처를 기입했습니다. 총 150개교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받았어야 했는데 LMS와 메일,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직접 선생님들께 전화해야 했던 것은 몇 개교가 안됐습니다. 그 전화마저도 혹시 모를 실수에 대비해 대본을 만들었고, 두세 번의 연습 끝에 전화함으로써 나름 성공적으로 업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몇몇 선생님들께서 '기분 상하지 않게 배려하는 게 느껴져서 좋았다. 정말 감사하다.'라는 감사 답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점.

청년 인턴을 경험함으로써 첫날의 저와 같이 고민을 많이 안게될 분들에게 이 공모를 통해 몇 가지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사 잘하기. 그 누가 되었든 회사 안에서 항상 웃으며 인사하는 것은 인상을 남기고, 관계를 만드는 법입니다.

둘째, 출근 첫날은 사업 매뉴얼 등을 받아 질문 리스트 만들기.

사무실 내의 동료분들과 공통 주제를 만들 수 있고, 기본적인 사업 이해를 통해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업무 중간보고하기. 인턴 업무를 보면서 서로 업무에 대한 공유가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던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내 메일이든, 전화로든 업무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담당자님께 중간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지시 받았을 때 정확히 어떤 사업 내용인지 숙지한다. 계획서나, 공문서를 요청해 숙지 한 후 업무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인에게 전달하세요.’ 이 말 한 마디에 아무 생각 없이 전달하고 나서, 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숙지된 것이 없어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계획서나 공문서등을 받아 숙지 한 후 메일로 공문서 파일 등을 보내드리거나 하여 문제를 해결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다섯째, 업무 지시 받은 후 우선순위를 나눠 한 번 더 확인한다.

업무를 받았는데 정확히 이해했는지 담당자님께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의 우선순위 등을 공유하면 실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책 제언

청년인턴의 경험인지라 직무교육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기본이면서 어려운 업무들이 있습니다. 전화, 비즈니스 예절, 사내 공통 문서 양식 등. 잡무에도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있기에 문서 작성 직무 교육을 통해 많이 사용 되는 단축키, 사용 방법, 편집 방법등을 숙지하게 하고, 전화 예절뿐만 아니라 요청 메일에 대한 작성 방법, 예시, 사내 공통 문서 양식에 대한 업무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회사별 적응 매뉴얼을 만들어 청년인턴들이 숙지하게끔 돕고, 기업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여 책임감과 책무감을 갖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낀 점.

졸업 전까지 공기업 취업에 대해 제대로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전전공공하며, 첫 출근전날까지 많은 고민과 걱정을 떠 안고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유로워졌다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업무가 많은 부서로 배치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인턴 생활을 하며 여태까지 걱정했던 취업 준비 예를 들면 컴퓨터활용과 같은 자격증은 내일 배움카드를 통해 입사 전에도, 후에도 배울 수 있고, 시험 또한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취업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인턴제도는 제가 하고 싶은 길을 찾게 해준 커다란 점이었습니다. 인턴이라는 장점으로 센터 내의 모든 사업들을 한 번씩 지원하여 경험해 볼 수 있었는데 저는 변화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새롭고 다양한 것, 사람을 만나는 것에 강점을 보이고 좋아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사례들과 발굴하는 것, 선정 과정, 지원 평가, 협의회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고, 동기부여를 얻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고용에서 사회적 경제로 세부 영역이 정해지기까지 계속해서 작은 점들을 짚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점 중에서 청년 인턴은 확신을 갖게 해 준 커다란 점을 그어주었고 앞으로 이어나가 '나'라는 선을 긋고 싶습니다.

V

지역인재 채용

- 1 지역인재 채용, 청년에게 희망을, 지역에 균형발전을
- 2 내 인생을 바꿔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 3 지방대생, 금융공기업 입사를 꿈꾸다
- 4 날개가 없다 그래서 뛰는 거다
- 5 지역인재채용, 상어의 부레가 되다.



01

지역인재 채용, 청년에게 희망을, 지역에 균형발전을

조〇〇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역적 소외를 극복하고 공공기관에 취업 성공한 사례

“소대장님, 전역하면 뭐하고 싶으십니까?”라는 소대원의 질문에
 “나는 전역하면 꼭 금융인이 될 거야.”라고 대답하던 소대장은
 전역 730일 후,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준범 주임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입사하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기에 더 많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공공
 기관 수기공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 비수도권이 가진 정보격차

정보격차를 뜻하는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디바이드는 디지털 활용도에 따른 정보격차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취업시장에
 는 ‘비수도권(Province) 디바이드’가 존재합니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대부분 기업의 본
 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채용설명회,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은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저 역시 취업준비를 하면서 서울에 있는 입사시험장에 아침까지
 입실하기 위해 시험 하루 전 상경하여 숙박업소에서 공부를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에 있는 취업준비생에게 시간적, 금전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특히 금융공기업은 채용규모가 작아서 시험 준비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금융공기업에 합격한 전례가 많은 수도권 학교에서는 선후배 간의 정보공유와 스터디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합격한 전례가 많지 않은 비수도권에서는 스터디를 구하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2016년~2017년 입사시험을 경험한 후에야 구체적인 공부 방향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준비생이었던 저에게 이러한 시행착오의 시간은 큰 부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목표를 구체화, ‘알리오’를 통한 기업분석

제가 처음 세웠던 “금융인이 될 거야.”라는 목표는 굉장히 모호했습니다. 금융권 내에도 은행, 카드사, 증권사, 금융공기업 등 수많은 기업이 있었고 업무성격도 달랐습니다.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모든 기업의 입사시험을 준비하기에는 공부 범위가 너무 넓었습니다.

이에 저는 기업의 핵심 사업, 업무 적성, 근무지를 고려하여 금융공기업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금융공기업 중에서도 5개 기업으로 목표를 한정했습니다. 준비할 내용이 명확해지니 공부방향이 구체화되었습니다. A 기관은 한국사 자격증이 필요했고, B 기관은 정보보안이 중요하며, C 기관은 논술전형이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제가 전공했던 전산학 5과목에 대한 필기전형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전산학 5과목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자 지체 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필기전형을 통과한 후에는 면접 스테디를 만들어서 면접전형을 준비했습니다. 스테디를 통한 수많은 모의면접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직무적인 장점에 대해서는 수백, 수천 번 연습하였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알리오 경영공시’를 통한 기업분석은 합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시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 이해하고 제가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을 면접관에게 답변 드린 것이 합격의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의 결과, 다섯 명의 스테디 구성원 중 네 명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네 명 모두 입사동기가 되어 서민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가치를 향해 정진 중입니다.

취업준비를 할 때 많은 곳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최근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면서 서류전형이 간소화되고 필기응시에 대한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목표를 구체화하여 필기전형을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개인, 학교, 지역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 개인에 미친 영향 : 일자리 분산과 지역인재 활성화

저의 모교인 부산대학교에는 연고지가 부산인 학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졸업생들은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부산에 금융과 해양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들이 이전함으로써, 전공을 살리면서도 연고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인재 제도는 지역 청년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취업준비생 사이에서는 이러한 유언비어가 있었습니다. '금융공기업에서는 명문대 학생들만 채용한다. 지방대학교는 서류를 통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이러한 유언비어는 취업준비생 사이에서 기정사실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인재 제도가 점차 활성화되고 지방대 학생들도 금융공기업에 입사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이러한 의심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까지 입사시험을 보러 가야 하는 진입 장벽이 완화되면서 많은 지역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지역 공공기관과 금융공기업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입사한 저와 동료들은 후배들에게 진로상담과 더불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채용에서도 제가 조언을 해주었던 후배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저는 이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역 청년들과 후배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파하겠습니다.

지역인재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하겠습니다.

* 학교, 지역에 미친 영향 : 사회공헌과 지역사회 발전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은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산연탄은행과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연탄 봉사활동을 하는 등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정보전산부에서는 직원들의 IT 특기를 활용하여 '미래 희망 나눔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 있는 여러 초등학교에 직원들이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코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내공지를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에 직원들이 참석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은퇴금융과 부동산 특강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전문가 양성을 위해 부산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에 금융대학원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국제금융센터가 위치한 부산 남구 문현동은 여의도와 광화문 못지않은 금융 전문 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과정에서 경험한 애로사항 및 정책 제언

* 지역인재 기준 확장

현재 지역인재의 기준은 최종학력 대학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지역인재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연고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교를 수도권에서 졸업했더라도 성인이 되기까지 학창시절을 특정지역에 거주한 청년은 지역인재의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지역인재의 기준을 단순히 대학교의 소재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지역인재라는 단어처럼 지역전문가로서 근무할 수 있는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수도권 대학 역차별 방지

지방이전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들이 활약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비판적인 의견도 존재합니다. 지역인재가 부족한 점수로 입사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합격자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인재 제도가 활성화되고 오랜 기간 시행된다면, 시험점수가 많이 부족함에도 지역인재 할당 비율을 맞추기 위해, 수도권 학생을 제치고 비수도권 학생이 합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지역인재 비율에 맞추어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보다, 지역인재 비율이 미달하더라도 수도권 학생의 실력이 월등할 경우 합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구체적인 합격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인재 채용에 이러한 고려가 병행된다면, 지역인재 제도는 불협화음 없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02

내 인생을 바꾼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박○○ 한국산업인력공단

2015년, 모교에서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접하다.

2015년은 제 대학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한 해였습니다. 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 학생회장으로서 학부생들의 입장을 대표하고 교수님 및 학교 관계자분들과 소통하며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회장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하여 수행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무게감을 두었던 사업은 '경력개발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당시 조선해양산업 경기 침체로 인해 학부 재학생들의 취업걱정이 증가하면서, 학생회 주도하에 직접 다양한 정보를 구해 이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줘야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다양한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산업동향 및 채용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전국의 취·창업박람회에 참여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의 인사담당자들에게 유익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울산대학교 해송홀에서 개최되었던 '2015년 울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였습니다. 현재 제가 재직 중인 한국산업인력공단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한국동서발전 등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한 7개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분들께서 각 기관별 채용요강 및 '14년도 지역인재 취업사례 발표, 모의면접 시연 등의 행사를 진행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울산 소재의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요건을 가지고 울산에 위치한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제도를 통해 채용된 현직자 선배의 발표를 통해 그 생생한 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울산에서 나고 자랐던 저에게 이 행사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변화를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산업도시 울산에서 기계분야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자연스럽게 공학계열의 전공을 선택하였고, 고향인 울산에서 일을 하고 싶었던 탓에 제조업이나 화학 관련 기업을 택하는 것만이 그를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행정관련 직무에 관심이 많았지만 공학 전공 탓에 공공기관 등 행정관련 직무의 동향 등 관련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사를 통해 울산에 이렇게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채용정보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울산이 향후 그저 산업대표도시일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를 바탕으로 지역단위 행정 거버넌스 구축에 앞장서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갖게 하였습니다.

선박설계를 꿈꾸던 공학도, No.1 HRD파트너가 된다.

현대중공업에 입사하여 선박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를 꿈꾸던 저는 대학에 입학하는 해부터 선박설계콘테스트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꿈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깊게 할수록 '과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 길이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증폭되어갔습니다. '거친 현장과 복잡한 계산식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내가 하고싶은 일이 맞을까?'에 대한 의문을 품은 채로 육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제 보직은 보병대대 인사과 행정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행정을 접하게 되었고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조직을 지원하는 일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복학하여 학생회장을 역임하며 재학생 및 학부를 위한 지원사업 및 행사들을 기획·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울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채용설명회를 통하여 공공기관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는 저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울산대학교 공과대학 학생들이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본인의 진로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학직렬에 지원하기 위해 일반기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지원자격요건을 갖추고 NCS에 대해 공부하는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였습니다.

공학직렬이 아닌 일반행정직으로 취업을 희망했던 저는 더 이상 공학에 대한 공부까 아닌, 실무·실력중심 채용에 맞추어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탄탄히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중소기업에서 6개월간 인턴활동을 하였고 평소 즐겨하던 운동을 바탕으로 헬스트레이너로서 6개월간 일을 하며 현장 실무경험 및 서비스업에 대해 몸소 느끼고 고민하며 발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상반기, 더 이상 헬스트레이너가 아닌, 공학전공을 바탕으로 한 내용전문가이자 HRD트레이너가 되어 대한민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개발에 앞장서겠다는 제 포부와 함께 당당히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에도 이러한 포부에 걸맞게 울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RC)와의 '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 선정 해결대책 마련'과 관련된 논의에 직접 참여하여 조선업과 관련된 훈련실시과정을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에는 산업지원팀에서 근무하며 17개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계, 조선 등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기관의 경우 기관 실무자와 같이 내용을 공감하며 행정처리를 할 수 있어 의사소통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됨을 느낍니다.

저는 향후 HRD 석·박사 학위취득과 꾸준히 조선해양산업 등 제조업 분야의 동향에 관심을 가지며 전문성을 강화하여 조선해양분야 대표 HRD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환경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와 같은 융합형 인재들이 많이 배출된다면 조직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관련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전지역 소재 최종학력만이 지역인재를 의미하는 것일까?

지역인재의 대표적인 요건은 '최종학력이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대학 및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입니다. 저는 이 요건을 보고 가장 먼저 '과연 이 요건만이 지역인재를 의미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지역인재채용으로 인한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장점은 본인이 성장하고 자라왔던 도시에서 직장을 가짐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통해 업무능률을 향상

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학력만 놓고 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취업생들이 생각하는 장점 및 지역인재의 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대학은 고등학교 내신 및 수능성적에 맞추어 지원하여 본인의 실거주지와는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정작 유년시절을 비롯한 중·고등학생시절은 울산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최종학력)을 울산소재의 학교에 재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역인재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울산 소재의 중·고등학교에 5년 이상 재학하였던 학생들은 지역인재전형에 응시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저는 지역인재전형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서 교육비 등 많은 자원을 투자한 인재들이 다시 그대로 해당지역에 취업한다면, 그 지역단위의 수익을 창출하고 내수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최종학력뿐만 아니라 5년 이상 해당지역에 실거주한 이력이 있는 인원들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상반기 울산의 지역인재 채용율은 7.7%에 그쳤습니다. 이는 근 4년 동안 전국 12개 시·도 이전공공기관의 평균 채용률과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8%, 2020년까지 30%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데에는 기관 입장에서도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4년제 대학교 등 대학기관의 개수가 적은 울산은 채용 인력풀이 굉장히 좁습니다. 따라서 18% 지역인재채용 또한 좁은 인력풀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이를 위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건을 확대한다면 자연스럽게 인력풀이 확대되어 더욱 높은 역량의 지원자들을 채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공모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앞으로 지역인재전형을 준비할 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크고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3

지방대생, 금융공기업 입사를 꿈꾸다

박○○ 한국주택금융공사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

20살. 즐거운 대학 생활도 잠시, 언론에서 8대 스펙(학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 봉사, 인턴, 수상경력)이 없으면 취업이 힘들다는 여러 기사를 보았습니다. 진로를 정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인턴, 각종 서포터즈, 공모전 등 대외활동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기업에서 진행되는 대외활동은 다양했고 흥미로운 프로그램도 많았으나, 신청자격이 수도권 학생들로 제한되거나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어도 매주 서울에서 모임을 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업 본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인턴 생활을 하며 고시텔에서 지내는 선배들도 많았습니다.

전공+경험+보람=금융공기업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고향 친구들의 스펙에 비해 그저 열심히 학교만 다니는 대학생이 된 저는 조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 도서관에서 한국거래소 자본시장 서포터즈 모집 공고 포스터를 봤습니다. 막연히 금융 관련 부산 소재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지원하였고, 운이 좋게 합격하여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위한 여러 활동을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으로만 접하던 자본·금융시장과 증권 관련 지식을 접목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공지식을 활용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금융공기업에서 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맘때쯤 정부에서 부산을 국제금융도시로 선정하여 금융공기업 이전 정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양성 목적 프로그램이 생겨나면서 금융경제 관련 활동 참여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이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부산에 지사를 둔 공기업들 또한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덕분에 한국은행 부산본부에서 진행한 대학생 경제교육 프로그램 'Economics Challenge - Busan'에 6개월 동안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우리나라 금융통화정책 강의를 들을 수 있었고 대학생들과 부산 경제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금융도시로서의 부산을 공부하며 부산이 해양금융 특화지역임을 알게 되었고 부산 소재 대학출신으로서 해양금융 분야가 다른 취업준비생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저만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양금융에 대한 관심으로, BIFC 해양금융센터에서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가 약 한 달간 진행하는 해양금융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선박금융 개념 및 구조, 조선·해운 시황 등 산업 관련 기초지식과 국책기관의 지원과정에 대해 배웠습니다. 특히 해당 기관 현직자들로부터 생생한 업무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세계 경제와 산업 연관성에 대한 안목을 길렀습니다. 또한, 금융공기업에도 다양한 기관이 있는 것을 알았으며, 해양 금융전문가가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해양금융교육에서 배운 선박금융의 전반적인 지식은 실제로 수출입은행 인턴 생활을 할 때 업무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역인재 제도, 역량 중심 성장의 발판

제가 겪은 지역인재 전형 도입에 따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저 또한, 위에 언급한 금융 관련 활동에 참여하며 꿈을 키웠고 직무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산학협동 노력으로 대학생들이 기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부산대학교의 경우 ‘지역기업의 이해 그리고 취업과 창업’이라는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해당 강의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부산교통공사 등 지역기업 인사부 직원이 직접 강의를 하며 기업 소개 및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해당 수업을 수강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의 강의를 통해 공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후 ‘재밋지예(才美之例) 주택금융강좌’에 참여하여 주택 및 금융 분야의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재밋지예(才美之例) 주택금융강좌’에 해당 학교 출신 선배가 직접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 홍보하고 취업준비 과정을 이야기해주어 나도 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인재 채용 비율 확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우수인재 확보 노력으로, 학생들은 저학년 때부터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고 목표기업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향으로 우수인재의 지역기업 취업률 제고 및 지역인재 타지역 유출방지가 가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금융공기업을 꿈꾸는 학생들이 쉽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4~5년 전만 해도 금융공기업에 진학하는 선배들은 소수였고 금융공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금융 관련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적었습니다. 금융공기업에 관심이 있더라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입사 후 지방대 출신이라서 차별받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생겨 도전도 못한 채 꿈을 접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직무역량 중심 및 블라인드 채용,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방대 출신 입사자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들은 저의 선배·친구·후배였고 그들을 보며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과거에는 현직자 선배를 찾기 위해 학교, 인맥 등을 통해 어렵게 취업 정보를 얻었다면, 지금은 같이 준비하던 친구들이 현직자가 되고, 선배들이 ‘선배와 손잡(JOB)기’ 프로그램 등 취업 멘토가 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수도권 집중적인 채용설명회, 직무체험, 대외활동 등으로 정보력에 뒤처진다는 인식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역인재’들을 위해

경제를 전공하고 금융공기업을 준비하던 저에게, 국제금융도시로서의 부산시의 도약과 공공기관 이전정책, 지역인재 채용 확대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경제 금융 관련 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었고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금융기관이 하는 일은 다르지만 우리나라 경제·금융·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목적은 같아 각 기관에서 얻은 배움은 입사준비를 할 때 좋은 자원이 되었습니다.

채용면접에서 출신대학·지역보다 저의 역량 개발 노력에 대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그러한 경험들은 취업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 제도에 대해 아직까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해당 정책이 정착되어가는 과도기이므로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확실한 건, 지역인재 채용 덕분에 지방대 출신인 저는 하고 싶은 업무, 꿈의 직장에 도전하고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역권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이전, 관련 산업 위주의 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의 역량 개발 노력이 병행된다면, 청소년들이 대학 네임밸류가 아닌, 진로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고 직무역량 배양 기회가 많은 여건에서 성장하여 삶의 터전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지역인재 채용제도 정착은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날개가 없다 그래서 뛰는 거다

강○○ 한국장학재단

날개가 없다 그래서 뛰는 거다

2016년 3월 대학교 입학식날, “대학교 입학까지 수고했지만, 지방대는 (취업이) 어려울거다.”란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의 4년 지방대 생활은 시작되었다. 누구나 꿈꾸는 대학교 1학년 생활을 나도 적당한 학점을 위한 공부와 친구들과의 여행을 다니는 등 금방 시간이 지나갔고 국방의 의무인 군입대가 다가와 2년의 의무를 마치고 1학년 2학기 복학 신청을 하였다. 군대에서 제대 후 졸업 전까지 마쳐야 될 취업 계획을 수립하고 나왔기에, 학교에 다니면서 취업전 준비해야 될 학점, 자격증, 토익 등 차근차근 준비해나갔다.

그러던 중 운 좋게 대기업 정규직 전환 인턴십에 합격하게 되어 서울로 상경하였다. 상경 후 6개월간의 인턴십 교육수료 후 2개월의 인턴십을 진행하였다. 서울에 위치한 회사에서 인턴 월급이 100만원 중반 정도를 받아 경제적으로 부담을 가진 인턴생활이었지만, 지방대도 지역적 소외없이 대기업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하나로 2개월의 인턴 생활을 마쳤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규직 전환은 되지 않았고 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다시 시작된 취업준비생의 생활은 전공과 연계된 교육, 세미나, 자격증 취득으로 계속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전공자를 채용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지원하여 서류전형 이후 실시되는 필기, 면접을 응시하러 다녔다. “지성이면 감천이다”이라 했듯 마침내 국내 포털 사이트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고 좀더 공부하고 싶은 생각에 전공관련 대학원도 진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한국장학재단이 고향으로 지방이전을 하였다는 뉴스를 보

게 되었다. 평소 연락이 왔던 모교 후배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수도권에 살고 있어 직접 만나서 도움을 주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같은 지역에 살면서 서로 여유가 있는 주말에 만나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장학재단의 경력직으로 입사지원을 하였다. 그리고 지방이전을 한 재단은 서류전형 우대사항 중 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이 있었기에 이때까지 준비했던 여러 경력들과 자격증, 영어점수 등 제출을 하였고, 운 좋게 서류전형 시 통과되었다. 이후 전형 절차로 필기전형, 면접전형들을 통과하여 최종입사하게 되었다.

취업준비 때 읽은 책 중 기억나는 구절이 있다.

“학벌 또한 노력의 결과이며, 능력임을 강조하고, 명문대생이 아니라면, 학벌의 핸디캡을 뛰어넘을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학벌”이 “날개”라면 “특별한 노력”은 “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나는 **전공관련 다양한 인턴십 수행 및 다수의 전공 자격증 취득으로 “특별한 노력”을 행하여 왔고, 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이라는 “기회”를 통해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입사하게 되었음을 감사히 생각한다.

가깝고 긍정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사람은 나면 서울로 가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야 한다.”라는 말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후배들에게 한국장학재단을 다닌다고 하면 주로 “서울에서 생활이 힘드시죠?”라고 얘기하곤 한다. 지방대 대학생들은 아직도 공공기관이 주로 서울·경기 및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 사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전에는 주로 공공기관의 본사가 서울·경기 및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여 지방대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공공기관의 채용전형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을 오르내리며 필기, 면접 전형을 치뤘으나, 지방이전 후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채용전형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지방대 학생들에게 공공기관을 좀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방대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수도권 대비 낮은 취업정보 때문에 공공기관 취업이 어렵게 느껴

졌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지방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설명회 개최, 공공기관 견학 등으로 지방대 학생들에게 지방이전한 공공기관에 입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동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대구소재 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공공기관에서 대구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8 지역인재 역량강화 오픈캠퍼스”를 개최하였다. 갈수록 심화되는 대구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개최된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일환으로 재단은 공공기관 취업전략, 기관별 역할 및 채용개요, 신입직원과 대화를 대구지역 대학생들과 함께 진행하였고, 나는 전산담당자로서 재단 내 전산센터 안내 및 재단관련 질의 시간을 통해 대구지역 대학생의 취업경쟁력 강화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이전한 지역에 공공기관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 시민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지방이전으로 공공기관 직원들이 그 지역에 새롭게 터전을 만들어 이전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만들어 가는 등 이전한 지역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공공기관이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끊임없는 소통과 이를 바탕으로 사회현안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할 재단이 되도록 재단의 구성원으로서 노력해야겠다.

지역인재 채용으로 입사한 직원과 지방대 학생들 간의 멘토링 제언

대학교 졸업 후 모교에서 진행하는 KRM: K(학교명) Role-Model Mentoring에 멘토로 참석하여 졸업을 앞둔 후배들과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처음 후배가 연락와서 멘토링의 멘토로 제안했을때 내가 취업준비 때 먼저 취업한 선배의 조언을 갈망했던 부분을 후배들도 똑같이 갈망할 것이라 생각했고, 바로 멘토링 멘토로 수락하였다. 4개월의 멘토링 기간 동안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될 정보에 대해 후배들에게 안내했었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던 나는 주로 온라인으로는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첨삭하였고, 오프라인으로는 업무와 관련된 최신 트렌드 세미나를 준비하여 발표하도록 과제를 주었다. 고맙게도 후배들은 멘토링 전 온라인, 오프라인의 과제에 대해 착실히 준비해서 참여하였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4개월의 멘토링 기간이 지나고 마침내

후배들은 졸업 후 각자가 원하는 은행 전산직, 공공기관 연구원, 전공 석박사 통합 대학원생 등으로 꿈을 펼치게 되었다.

멘토링을 통해서 느낀 부분은 지방대의 재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하여 공공기관 취업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다고 느꼈다. 더욱이 취업에 성공한 선배나 지인의 멘토링을 통하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 대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등 알 수가 없다. 또한 상대적으로 서울·경기 및 수도권 지역 재학생들에 비해 학교 선배들의 수도권 지역의 거주에 따른 취업 노하우 공유의 어려움 및 채용박람회 및 설명회의 수도권 개최 등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이 내가 느낀 지방대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한계를 조금이나마 보완하기 위해 지역인재로 채용된 공공기관의 직원들 중 본인의 직무에 대한 관심있는 지방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다. 지역인재로 채용된 공공기관의 직원들만큼 지방대 대학생들의 취업준비에 대한 절실함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멘토링에 멘토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지역인재 직원들에게 안내해주고, 지방대 대학생들과 커넥션을 맺어 취업준비 시 지역적 소외가 사라지게 만들어가는 멘토링 정책을 제안하는 바람이다.

05

지역인재 채용, 상어의 부레가 되다.

김○○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인재채용은 저에게 상어의 부레와도 같았습니다. 원래 부레가 없는 상어는 살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합니다. 공공기관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저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움직여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의 고시 준비생들과의 경쟁 등의 한계에서 부딪힐 때면 어두운 심연으로 곤두박질치곤 했습니다. 지역인재채용은 희망을 갖고 계속해서 정진할 수 있게 하는 상어의 부레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입사 지원하기 전 당시에는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는 기관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격요건, 가산점이 될 수 있는 토익점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전산회계, 전산세무, 컴퓨터활용능력 등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결과 서류전형에서는 대부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에서는 탈락의 쓴맛을 많이 맛봐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서관에서 NCS공부와 전공공부, 스터디를 병행하며 필기시험에 몰두했음에도 2~3년씩 고시공부를 했던 수험생들과 겨루는 것은 바위에 달걀치기 같았고, 내가 과연 가능성이 있는 것에 도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제 자신을 의심할수록 자신감 또한 많이 하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시험이 서울 또는 공공기관 본사 소재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제주도에 산다는 여건상 비행기를 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도 부딪혀 공부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에 많은 부담이 따랐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이 확대되면서 공공기관 취업을 함께 준비하면서 주위에서도 볼 수 없었던 합격자들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고, 잇따른 고배로 많이 지쳐있던 저에게 다시 열정의 불꽃을 지피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전과는 다르게 일반 채용공고보다 지역인재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제주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인재를 따로 채용하는 곳에 집중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블라인드 채용을 조기에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인재를 따로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제주지역인재를 따로 뽑는 곳이 드문 만큼 제가 집중해서 준비해야 할 곳은 이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공기관 합동채용이 시작되며 같은 날 20개의 기관이 시험이 있고, 제주지역인재 채용인원이 1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기관에 시험을 봐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와 직무수행능력평가로 이뤄져 있었습니다. NCS 시험은 수리영역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다른 영역에서만만큼은 확실히 점수를 얻고자 했습니다. NCS 영역 중에 이론적인 부분을 정리해 개념을 이해했고, 스터디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수리 문제를 접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직무수행평가는 전공시험이 경영학, 회계학, 통계학 과목이었습니다. 경영학과 회계학을 중심으로 공부했었기 때문에 통계학을 잘 볼 수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취업카페나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준비하는 메신저의 단체 방에서 다른 사람들 또한 통계학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필기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자신이 없다며 다른 곳을 지원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같이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던 친구도 다른 곳의 시험을 보겠다며 LX의 필기시험을 포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또한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았고 오히려 통계학을 잘 준비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공이 회계학이었기 재무회계, 원가회계 기본 문제를 풀어가면서 감을 익혔습니다. 경영학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개념을 파악하고 최소 10회독은 했기 때문에 이 과목 또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풀면서 준비했습니다. 통계학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도 없고 따로 기출문제가 없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공무원 통계학 강의를 들으면

서 개념을 이해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제공하는 통계문제를 거의 외우다시피 반복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온 기회였고 면접은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절박함이 강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 면접 보는 친구들과 함께 면접 준비를 하고 대학교 취업상담실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에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가서도 내내 떨었지만 그동안의 연습 덕분인지 떨면서도 저의 생각을 어느 정도는 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은 상황면접과 일반 질문으로 이뤄졌습니다. 상황면접은 사전에 1분 정도의 시간 내에 카드에 적힌 내용을 읽고 면접장에서 바로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상황면접은 1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 있었지만 일반 면접에서 순발력을 요하는 질문에서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지역, 학교, 관련학과, 근무한 기관 등에 대한 내용은 일체 말하지 않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채용형 인턴으로 최종합격을 하고 나서 안도감도 있었지만 말 그대로 인턴이었고, 또 기획서를 작성하는 필기시험과 최종면접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턴기간이 끝나고 5단계의 채용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 되고 나서야 주위에도 알리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고스펙 사람들, 고시생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내가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괴로워했지만 지역인재채용으로 지방의 취업준비생들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느껴졌습니다. 지역인재채용 확대 정책으로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일자리가 서울에 있고, 한다면 먼저 공공기관이 나서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또한 지방이전으로 인해 순환근무로 불편을 겪는 기존의 직원들을 해당 지역 인재가 대신한다면 이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지역에도 활력이 생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2년간의 취업준비는 지역인재채용으로 인해 막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산다는 이유로 물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지역인재 육성 정책 등으로 인해 지방출신이라는 이유로 소외되지 않고 이제는 노력하면 이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한계적인 상황에 부딪혀 고꾸라지는 상어들에게 부레가 되어 자유롭게 바다를 헤엄칠 수 있게 해준 지역인재채용 정책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장치가 지속적으로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고졸 채용 | 블라인드·직무능력중심 채용
유연근무제 | 청년인턴 | 지역인재 채용

인 쇄 2018년 12월 21일

발 행 2018년 12월 31일

발행인 김 유 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 414-2114(대) www.kipt.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인 쇄 경성문화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시·군·읍·면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